

일제치하 독립 투쟁사

(1910.8.22 ~ 1945.8.15)

일제침략(日帝侵略)의 개요(概要)

우리나라 이태조는 조선조 개국이후 한양으로 천도 태조3년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로 연현(領縣)을 분치 경기좌도(瑞原, 坡平, 交河, 深岳, 積城縣) 편입되었으며 태종 13년(1413) 행정제도 개혁으로 전국 8도와 주군현(州·郡·縣)제도로 나누어 행정을 실시 큰 변동없이 고종대에 이르게 되었으나 고종31년(1894) 13도제와 부, 주, 군, 현(府, 州, 郡, 縣)을 군(郡)으로 개칭 각 지역별 면(面)제도를 설치 한성부(漢城府) 중앙에 국무총리 내각책임제로 일제행정제도 개혁을 단행하게 되니 즉 갑오경장(甲午更張)이다. 그리하여 본군에서도 파주목(坡州牧)이 파주군 적성현(積城縣)이 적성군으로 교하군은 그대로 존속 개칭 20개 면을 설치 행정을 운영하게 되니 이는 일제가 친입조정하게된 시초이라 하겠다. 따라 고종 32년(1895) 민비시해와 단발령을 포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체결 고종양위와 국군해산 등으로 의병의 봉기가 일어났으며 1910년 8월 22일 일한 합병조약에 조인 9월 1일 순종을 이왕(李王)으로 고종을 이태왕(李太王)으로 황태자를 왕세자로 개칭 1945년 8월 15일 까지 36년간에 걸쳐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는 동안 국내외에서 의병활동과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전개 수많은 애국지사가 희생되었다.



○ 한말(韓末)의 내외 정세

영정조(英·正祖)시대를 지나면서 세도 정치(勢道政治)로 순종, 현종, 철종 등 어린 임금을 내세우고 정권이 침체하여 국가가 점점 쇠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소위 문예 부흥(文藝復興)이 조선조 초기에 일어났으나 산업혁명으로 서구문명은 고도의 발전을 거듭하여 기계혁명, 교통혁명, 정치혁명, 군사혁명 등 현대 사회로 발달음을 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구태의연한 봉건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영·정조(英·正祖)시대에 겨우 대두된 실학(實學)도 큰 빛을 맺지 못하고 순, 헌, 철종(純, 憲, 哲宗)의 세도 정치와 고종 때의 쇄국 주의는 세계 정세에 맹목이 되어 발전해 가는 세계 조류에 우리 나라만이 퇴보하는 감마저 주었던 것이다.

과연 전 세계 열강들은 전술한 산업 혁명, 기계 혁명을 이루고 국력의 증강으로 제국 주의화 하여 약소 민족의 침략에 나섰으며 포르투갈, 화란을 선두로 영국, 불란서, 독일, 러시아가 뒤따르고 미국은 늦게 참여하였고 일본도 재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인접국인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침략의 검은 손을 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열강의 각축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한말에 이르러 철저한 쇄국 주의 정책으로 세계 추세에 눈을 가리고 구태의연한 봉건 사회를 탈피못하고 있었으며 임진, 병자의 양대 국난을 겪을 후에도 사색 당쟁(四色黨爭)은 여전하였고 따라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인하여 삼정(三政)은 문란하니 급기야 동학란(東學亂)이 일어났다. 이 때 혜성처럼 나타난 대원군이 대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민비(閔妃)와의 알력으로 정계가 혼란하여졌다. 이 틈을 타고 고종 1년 2월과 동 2년 9월에 러시아가 남하하여 통상(通商)을 요청하였으며 한편 대원군은 천주교를 탄압하여 병인 양요(丙寅洋擾)가 일어났다. 그러나 불군(佛軍)을 격퇴시키므로써 아군의 사기는 높아지고 쇄국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 고종 8년에는 제너럴 쉬어맨호 사건을 계기로 미국 함대가 강화도륙 침범하였다가 물러간 사건도 일어났다.

고종 10년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로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親政)이 실시되자 민비가 정치에 간여하게 되어 더욱 국정은 혼란에 빠지고 일본의 운양

호(雲揚號) 사건이 일어나고 병자 수호 조약(丙子修好條約)이 체결되어 부득이 개국(開國)하게 되니 러시아, 미국, 불라서 등과도 차례로 통상하게 되었다.

일본의 세력 팽창이 원인이 되어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청일(淸日)의 세력 다툼 끝에 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이 체결되어 국내에는 개화파(開化派)가 대두되어 갑신 정변(甲申政變)을 초래하고 또 이로 인하여 청일 전쟁이 발발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독무대를 막기 위하여 삼국 간섭(三國干涉)이 발생되고 결국에 가서 러시아의 남하로 노일 전쟁이 발생하였다. 노일 전쟁으로 러시아가 패배하자 열강의 세력이 완전히 구축되어 한국은 일본의 침략 독무대가 되고 말았으니 이 나라의 운명은 풍전 등화격이 되고 말았다. 드디어 고종 광무 9년(1905)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므로서 국권은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망국의 날이 닥아오고 있었다.

을사보호조약이 발표되자 종로 상인들은 철시하고 각 학교는 폐문하고 스승과 제자들이 통곡하였으며 황성 신문(皇城新聞)은 그 사설에 『是日也 放聲大哭』이란 논설을 실었으며 이완용(李完用)의 집에는 불이 나고 이근택(李根澤)에게는 자객이 뒤따랐다. 민영환(閔泳煥), 조병세(趙秉世), 홍만식(洪萬植), 이상철(李相哲) 등이 자결하고, 수 없는 사람들이 왜병에 체포되고 전국에 의병(義兵)이 봉기하였다. 당시의 의병 활동을 매천 야록(梅泉野錄), 의병대장 병부(義兵大將兵簿) 등을 참조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한일합병과 3·1민주혁명의 과정

1910년 합병 조약에 조인한 일본을 9월 1일에 순종을 이왕(李王)으로 고종을 이태왕(李太王)으로 황태자를 왕세자로 개칭하고 76명의 친일 분자에게 작위를 주었다.

통감부(統監府)를 총독부(總督府)로 개칭하고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무단정치(武斷政治)를 시작하였다.

총독은 일본 천황의 직속으로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초연한 지위를 가지고 모든 관리의 인사권, 군의 통솔권, 제령 입법권(制令立法權), 판검사의 임명권 등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한손에 잡아쥐고 행사하였다. 총독부 관원 총원이 약 1,000명인데 그 중 40명의 한국인은 말단 직원으로 배정되었을 뿐이다. 1914년

지방 행정은 13도(道), 12부(府), 4,338면(面)으로 나누어 도장관(道長官), 부윤(府尹), 군수(郡守), 면장(面長)을 배치하였다.

치안은 헌병과 경찰을 통합하여 경무 총감부(警務總監部)에서 조선 통치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초대 총독 테라우찌(寺內政毅)는 막강한 권력으로 무단 정치를 감행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모든 단체의 해산은 물론 일진회(一進會)등도 해산시켰으며 신문을 폐간하고 어용신문인 경성일보(京城日報), 매일신보(每日新報)만 존속케 하였다. 각급 학교에는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여 우리 말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말을 국어라 하여 강제 상용케 하였다. 또 한국 역사와 한국지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수십만권의 서적을 압수 소각하였고 우리말과 우리 글자를 없앴던 것이다.



3.1민주 혁명의 과정

○ 한일합병과 외적의 포악성

일본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1907년에 광무황제를 순종에게 양위시키고 자기들의 보호영을 만들어 조선군을 해산하여 무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홍콩에서 스티븐이 암살을 당하였고 이완용이 심장을 칼로 찌르는 일이 생길때마다 왜적은 치안을 확보하였다.

단기 4243년 경술(1910)5월 30일 이동박문에 후임으로 왜 총감 증미황조(曾彌荒助)가 사임하고 왜 육군대신 사내정의(寺內正毅)이 부임 6월 20일 왜 경무총감을 두고 헌병 2,000명을 증파 중앙과 지방 각 요소에 배치하여 경찰제도를 확립 경무총감에 명석원이랑(明石元二郎)이 장악케 하였으며 군함 수십척으로 인천과 부산에 유치 각 신문사를 폐쇄하는 한편 각 단체를 해체 경향 각지에 명망이 있는자 수천명을 구속하고 비열한 경계를 하였다. 7월 23일 대라우찌(寺內)가 일본에 갔다 돌아와서 병합조건을

내놓고 총리대신 이완용을 불러 가진 협박과 유혹으로 각조항을 승인시키고 8월 22일 어전회의를 열어 강제로 가결케한 후 오후 5시 조인을 끝냈다. 그리하여 8월 29일에 병합조약과 함께 융희황제(隆熙皇帝)의 양국조서(讓國詔書)와 최후의 칙유가 발표되었다.

○ 일한 병합 조약문 ○

일본국 황제 폐하와 한국황제 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한 친밀 관계를 돌보아서 상호간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시키는데 목적을 위하여 한국은 일본제국에 병합함만 같이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의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일본국 황제 폐하는 통감 사내정의(寺內正毅)을 한국황제폐하는 내각총무대신 이완용(李完用)을 각기 전권위원을 회동 협의한 후 아래 각 조항을 협정한다.

제 1 조 한국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토록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제 2 조 일본국황제폐하는 전조에 의하여 양여를 수락하고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할 것을 승인함.

제 3 조 일본국황제폐하는 한국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폐하전하와 아울러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 기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형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하겠음을 약함.

제 4 조 일본국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황족과 그 후예에 대하여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형유케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겠음을 약함.

제 5 조 일본국황제폐하는 훈공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榮爵)을 주고 은사금을 부여한다.

제 6 조 일본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동시에 시

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기여하고 또 복리증진을 도모한다.

제 7 조 일본국정부는 성의충실히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자를 사정이 허락하는데 까지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에 등용한다.

제 8 조 본조약은 일본국황제폐하와 한국황제폐하의 인가를 얻었으니 공포의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명치43년 8월 22일 統監子爵寺內正毅

융히 4년 8월 22일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이상과 같이 병합조약을 선포하는 동시에 태상황(太上皇)을 내려 덕수궁 대왕전하라하고 융히 황제를 창덕궁 왕전하라하며 총감부를 조선총독부라 개칭하는 동시 사내정의(寺內正毅)을 조선총독 산현이삼랑(山縣伊三郎)을 정무총감 유길충일(有吉忠一)을 총독부장으로 인명하고 중추원 의관으로 김윤식, 이완

용, 박계순, 고영희, 조중웅, 이용식, 이지용, 권중현, 이하영, 이근택, 송병준, 임선문, 이제곤, 조의연, 이근상 등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심봉자를 골라 작봉하는 한편 충실히 일본국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맹세한 사람들과 이에 반대로 구국일념에 확고한 의지로 순직한 용사들이 있었으며 본군관하 남작을 받은 김사철(금촌읍 검산리)와 민영달(교하면 문말리) 삽다리시장에서 활복자살한 순직자 반학영(교하면 서폐리)가 있으며 묘소가 있다.(별지와 같음)

○ 한말독립운동 단체

독립협회는 1895년 서재필이 미국으로부터 환국하여 조국의 독립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창립 1896년 독립문을 세워 국민이 인식을 철저히 계몽운동으로 행하여졌으며 독립신문과 황성신문(皇城新聞)은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였으나 1898년 정부의 대관중부자격자를 탄핵하다가 황국협회와 충돌되어 간부인 이승만등 17인이 체포 투옥되어 해체되었다. 그후 1906년 안창호는 미국에서 보호조약체결을 알고 귀국

하여 이갑, 전덕기, 양기택, 안태국, 이동영, 이동휘, 조성환, 노백림등과 비밀결사를 조직 800여명을 규합 평양에 대성중학교와 자기회사(磁器會社)를 창립하고 평양 대구 등 중요한 도시에 태극서관을 개설 문화보급과 동지연락을 하다가 발각되어 해체되었으나 국치후 국내인민들은 왜적의 명위에 압박을 받으면서 암암리에 신민회 대동청년단 학우회, 광복회 노동공제회, 신간회등을 조직 해외에 있는 국민회 청년회 홍사단 구국활동과 중국에 제사, 부인, 보약사, 향약계, 농무계, 의구단간민교육회등을 창립 독립운동을 국내 광복단과 긴밀히 연락 활발히 전개되었다.

제1차대전이 일어나던 1914년 국가대사를 획책하던 천도교 삼세교주 손병희(孫秉熙)는 결사보국의 근기 100만 교도에게 양성하고 전국 37개 대교구에 제반준비를 비밀리에 진행시켰다. 이리하여 1918년 국내외의 유지인사 1만명의 날인을 얻어 우리나라 독립을 선언키로 하고 이상재, 송진우, 윤치호, 윤용구, 한규설, 박영효, 김윤식, 한

상용, 나소교, 신익희 등은 천도교 유림 각 계를 연결하자는데 의결이 일치 권동진, 오세창, 최립은 천도교 교주손병희와 의논 독립선언할 것을 약정하고 1919년(기미)2월 상순부터 각 지역을 통하여 모의한 후 경성을 독립운동 본부로 삼아 수회에 협의할 거듭한 끝에 독립선언 일시는 광무황제의 국장전인 1919년 3월1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수십만명이 국장에 참가코저 서울에 집합할 것을 계획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대대적시위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기일에는 손병희를 필두로 천도, 기독교, 불교의 대표들은 탑동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다수의 인쇄물을 경성시내에 살포하고 각 지방유지와 일반 국민에게 분송하면서 독립을 선언하여 만세를 고창하기로 하였다.

각 지역에 독립선언할 일시와 장소 방법을 전달하는 한편 왜정부와 미국대통령 및 열국 강화위원회에 독립선언 의견서를 기독교, 천주교, 불교단체에서 제출키로 하고 김홍일 감독하에 독립선언서 21,000매와 포스

터등 보성관에서 인쇄, 연전, 보전, 의전, 불교중앙 학림 학생을 통하여 살포하였다. 2월 28일 김원벽등이 경성명동예배당에서 중등학생 대표를 소집 이갑성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500매를 강의덕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분포하고 안세환, 임규를 동경에 밀파하여 독립통고이류서를 일본정부와 중의원양원에 송부케하는 한편 현준을 상해로 밀파 미국대통령 윌슨을 통하여 조선독립의 평화회의에서 각국대표에게 천명함과 아울러 왜총독부와 동경에 있는 열국공사관에 송달하게 하였다.

광무황제는 명성황후가 왜적에 시해당한 후 원한이 깊은데다가 황태자 영친왕을 왜황족 방자여사(方子女士)와 비밀리에 기미년 1월 25일 결혼시키게 되자 격분하였으며 또 유금중, 식반중에 독약을 넣어 잡수시게 하여 붕어하였는데 왜적의 교묘한 공작으로 한시간만에 애모하게 궁녀 2명이 폭사하게 되었다.

○ 왜적이 조상을 발표하자 3천리 강산에는 의운이 감도는 가운데 경성에서는 일주

일을 두고 인산인해로 분곡하는 한편 순절하는 이가 많았으며 이러한 가운데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이하 233인은 광복을 위하여 죽음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하고 4252년(1919)기미 3월 1일 오후 2시 학생 5,000여명과 군중 수십만명이 모인 탑동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한용운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하고 하늘높이 고창 천지가 진동하는 가운데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인의 자주임을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외치며 일파는 종로를 통과 대한문으로 들어가 빈전을 향하여 국궁으로 조례를 하였고 일파는 경성우체국앞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남대문 광장을 지나 의주로 불란서 영사관으로 또 일파는 덕수궁 앞으로 가면서 만세를 불렀으며 일파는 조선보병대 앞으로 가서 대한문 앞으로 일파는 미국영사관에 이르러 독립선포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국 영사관을 순회 종로광장으로 이르렀으나 왜헌병과 경찰은 말을 타고 노도같이 돌진하는데는 어찌할 수 없었는지 오후 6시까지 지위

를 하었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민족에 대하여 문화민족의 진집한 기백에 놀랐다고 한다.

○ 전국적 독립운동 전개

3·1운동 파고다공원에서 발단된 시위운동은 3월 3일 국장 당일에는 고국애제의 영결을 위하여 13도로부터 경성에 모여든 50여만의 인민이 애도하고 돌아가면서 각종교단체를 통하여 독립선언운동이 비밀리에 계획 실행되었다는 것 통감하고 돌아가 전국 방방곡곡 시장, 학교, 사원 등지에서 만세운동이 각 지역 600여개소에서 3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연달았으며 본군에서는 3월 26일 봉일천 시장날 심상각이 주동하에 수만명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시위운동을 하며 경찰주재소를 부시고 파견된 헌병대와 격돌끝에 현장에서 수명이 죽었으며 동일 교하면 장명산에서 염기호 유명등이 주동이 되어 3,000여명이 시위운동으로 염기호가 사살되었다. 또한 파주읍 봉서리 박찬익과 박영만 심상각 유명등이 상해로 망명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8·15해방후 귀향하였다.

爵封受與者及殉節士名簿

公 爵	李 炯 李 憲 李垓鎔
候 爵	李載完 李載覺 李海昌 尹澤榮 朴泳孝
子 爵	李完用 李垓鎔 朴齊純 高永喜 趙重應 閔丙奭 李容植 金允植 權重顯 李夏榮 李根澤 宋秉峻 任善準 李載崑 尹德榮 趙民熙 李秉武 李根命 閔泳奎 閔泳韶 閔泳徽 金聲根
男 爵	尹用求 洪淳馨 金奭鎭 韓昌洙 李根湘 趙義淵 朴齊斌 成岐運 金春熙 趙同熙 朴箕陽 金思濬 張錫周 閔商鎬 趙東淵 崔錫敏 韓圭萬 俞吉濬 南廷哲 李乾夏 李容元 李容泰 閔泳達 閔泳綺 李鍾建 李鳳儀 尹雄烈 李根湖 金嘉鎭 鄭洛鎔 閔桂默 李載克 李允用 李正魯 金宗漢 趙鼎九 金鶴鎭 朴鎔大 趙慶鎬 金思轍 金炳翊 李胄榮 鄭漢朝 閔炳植 (金奭鎭 自殺, 趙鼎九 自殺未遂 尹周永, 韓圭萬, 俞吉濬 不受封)
殉節士	錦山郡守 洪範植, 駐露公使 李範晉, 承旨 李晩云, 進士 黃玟 判官 朴學榮, 承旨 李載允, 承旨 宋鍾奎, 判書 金奭鎭 誠官 宋益勉, 正言 鄭在健, 監役 金智洙, 英陽儒生 金道賢 宋完命, 金天述, 金永世, 鄭東植, 趙章夏, 李學純 以外에도 많았으나 發說 不許함.

3.1운동의 발상과 전개

세계의 모든 식민지와 약소 민족은 이 자결주의에 강한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본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주의 이념을 밝힌것은 1916년 5월 27일 이었다. 이 이념은 당면한 어떤 구체적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본 이념으로 제창되었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맨 처음 큰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이었다. 1917년 노르웨이, 스웨덴 에이레 등에서 주축이 되어 14개국 약소국 동맹회의가 개최되고 한국 대표로 박용만(朴容萬)이 참석하였다.

1918년 11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재미한인 전체 대표자 회의(在美韓人全體代表者會議)가 소집되고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로 李承晚, 閔瓚鎬, 鄭翰景을 파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중국상해에서 呂運亨의 활동으로 金奎植이 민족대표로 파견되었다.

한편 제일 한국 유학생들의 1919년 2월 8일 조선 청년독립단(朝鮮靑年獨立團)을 조직하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1919년 1월 22일 고종 황제께서 밤중에 밤참을 드시고 급서하자 일언의 독살임이 밝혀져 국내 민심은 뭉뚱하게 되었다.

이에 천도교(天道敎), 기독교, 불교 등 33인 민족대표가 3월 1일 고종 황제의 인산(因山)때를 기하여 독립선언문을 전국, 전세계에 발표하고 독립만세를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은 붓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수원의 화수리(花樹里)사건, 제암리(堤岩里)사건 등은 대표적인 것이다. 3·1운동의 피해 통계를 저들의 통계를 빌려보면,

피살자 7,645명, 체포 49,811명, 교회당 파괴 59"

부상자 45,562명, 가옥파괴 724호, 학교 파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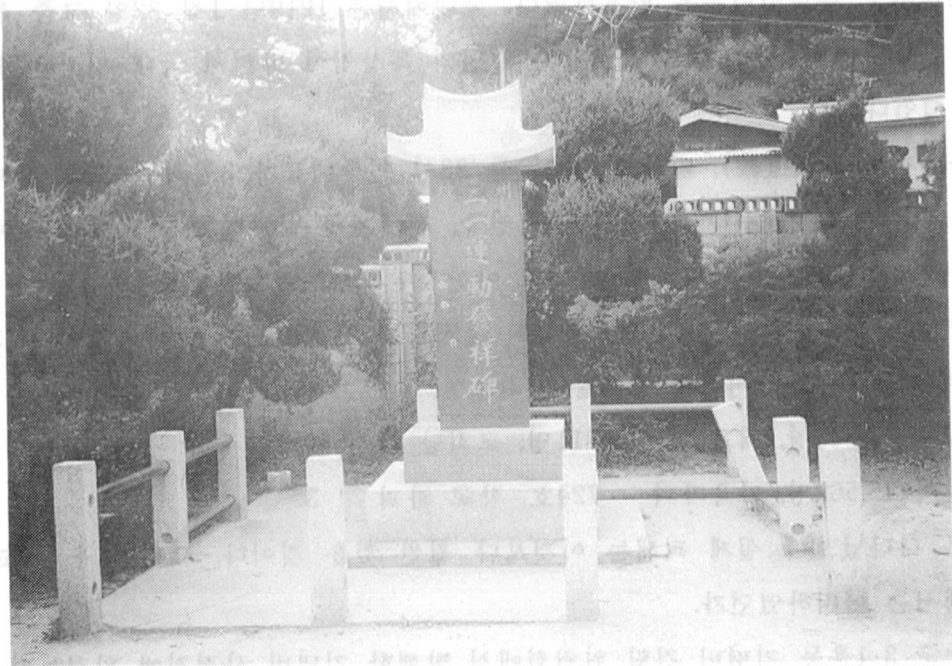
등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피해는 이것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고장 파주에서는 어떠하였던가.

파주군 3·1운동 기념비 건립 위원회에서 발행한 기념비 사적지에 의거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의병의 활동

독립군은 1910년 이후 해외로 망명한 우국지사들이 본래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연해주, 만주(특기 간도)등지를 근거지로 삼았다. 이시영(李始榮), 이회영(李會榮)등 형제가 통화현 합니하(通化縣哈呢河)에 신흥 강습소(신흥 무관학교의 전신)를 설립하고 병농제(兵農制)를 써서 농사와 군사 훈련을 겸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1919년 신흥 무관 학교(新興武官學校)라 개칭하고 1920년까지 2,100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 외에 많은 독립단체가 조직되었고 특히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의 독립군은 청산리(靑山里)싸움에서 대승하였다. 그후 대한 독립군단으로 통합하여 1921년 1월에 러시아 「이만」으로 이동하였으나 러시아의 무장해제로 만주로 돌아왔으나 발부칠 곳이 없어졌다.

이 때 1940년 9월 상해 임시 정부에서 독립군을 흡수하여 광복군을 편성하게 되었다. 광복군은 1941년 12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중국군과 같이 전투하게 되었다.



〈3·1운동 발상비 전경〉

초기의 저항운동

○ 반학영(潘學榮)의 자결

이 나라에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함은 이민족의 침략은 받았으나 이 민족의 침략으로 국권(國權)을 상실한 적은 없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은 치욕과 수치감에 견딜 수 없어 상복을 입고 한 평생을 보냈다. 좀 더 강개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었다. 이러한 순국 열사와 애국지사가 얼마나 많았던가.

본군에서도 그러한 순국 열사가 있었으니 교하에 거주하던 반학영(潘學榮)지사였다. 반학영지사는 본래 내시(內侍)였으나 한일 합방의 소식을 듣고 비분강개한 나머지 삽교(插橋) 시장에서 칼을 입에 물고 자결하였다. 그가 죽은지 20여년이 지난 후 그의 동료들이 그의 묘소에 비를 세우고 비문을 새겼으니 그 비에 자세한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묘소는 잡초에 묻혀 분묘가 보이지 않고 묘비는 나무에 가리워 묘비가 없었더라면 묘소는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독립 유공자로서의 연사의 묘소가 황폐한 것을 안타까운 일이다.

○ 승록대부 내시부사 반공 묘표(崇祿大夫內侍府事潘公墓表)

경술년 가을 8월 2일 대한민국 승록 대부(崇祿大夫) 지내시부사(知內侍府事)인 반학영공이 충성스럽게 죽으니 그때에 나이가 70이다. 파주의 신촌(新村)을 택하여 곤좌(坤坐)에 장사하였다. 이제 20여 년이되었으나 아직까지 그의 덕을 추모하는 기록이 없었으므로 옛 동지들이 그의 큰 절개가 어둠에 묻혀서 나타나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고 서로 돈을 모아 돌에 그의 사적을 기록한다. 나와 공은 같은 조정에서 근무하면서 근무지가 서로 달라 서로 알지 못하였다. 광무 7년(1903) 효정 왕후(孝定皇后)의 국장 때 공은 도설리(都薛吏)가 되고 나는 제관(祭官)이 되어 같이 모든 것을 주선하는 분주한 부서를 맞게 되자 비로서 서로 알게 된 지 3년이 되었다. 그의 죽음이 충성한 것임을 듣고 슬프다. 아픔이 오래 되도록 잊혀지지 아니한다. 묘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어찌 묵묵히 참고 있으랴.

공은 거제인(巨濟人) 한림학사(翰林學士) 반서(潘胥)의 후손이다. 철종 8년 정사년(1857) 처음으로 입사(入仕)하여 벼슬이 일품(一品)에 이르렀다. 대개 그

사람됨이 자서하고, 신중하여 철종, 고종 양대에 걸쳐 항상 임금의 측근에서 근무하면서 일찌기 사소한 잘못도 없었다. 또 경개(耿介)하고 정직하여 홍수(紅袖)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권문(權門)에 드나들지 아니하며 만약 임금이 총애를 믿고 제 뜻을 허트리는 자가 있으면 왕래를 끊고 말았다. 무릇 모든 이익을 취하는 일에는 한번도 마음을 쓴 바 없고 다만 박봉으로 겨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으므로 곤궁함을 면치 못하였으나 항상 편안하였다. 한평생을 학문의 이론만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떳떳한 마음에 맞게 실행하였고, 또 행동의 돈독함이 제나라, 노나라의 대선비보다 못지 아니하였다.

한번 국론이 갈라지자 왕실은 다난해지고 내우 외환으로 국가 대세가 판탕(板蕩)하여지자 공의 걱정은 불꽃같이 연연한 마음으로 국가를 보살폈다. 그러나 공이 벼슬을 구만두고 파주 고향을 돌아왔을 때는 이미 국가는 망하여 봉작을 받고 입연(入筵)을 선포하였다. 공은 비분 격앙하여 밤낮으로 통곡하고 음식을 끊기를 여러 날을 하다가 마침내 유서를 작성하여 충성스런 뜻을 밝히고 삽교(插橋)시장에 나아가 드디어 길가에서 칼을 물고 엎어져서 그 충성된 뜻을 다하니 아— 장렬하도다. 보통 사람의 인정은 삶을 즐기지 아니함이 없고 죽음을 슬퍼한다. 죽음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태산보다 중한 것인즉, 어찌 공같은 분을 이르는 것이 아니리오.

나무가 푸른 것은 많은 열매를 맺음이요. 신하의 큰 은덕이 되어 밝고 밝게 일월보다 빛나나니 이 족히 슬프지 않으리요. 회고하여 볼 때 전연(渾忍)하여 구차하게 살아가는 자 말라서 살이 빠진 목과 초라한 기름기 없는 누런 얼굴로 목석같이 살아가는 자, 족히 즐겁다고 하리오. 이와 같이 말하고 보니 나는 오히려 죽은 목숨이요. 공은 오히려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겠는가? 감히 공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슬퍼하노라. 배위(配位)는 전주 이씨(全州李氏)요. 자손들은 공을 뜻을 계승하였다.

명(銘)

파주의 산과 산 충신의 유연(悠然)한 집 비둘은 달을 망정 그 이름 영원하리.

승록 대부 지 내시부사 승전색(乘傳色) 반 학영 공의 묘

정경 부인(貞敬夫人) 전주 이씨 부좌(附左)

일제초기의 저항운동

순국열사 반학영 선록

1962년 대한민국 전국 공로훈장 단장 수여

충절 반학영(관내시부사)은 1840년(현종 6)에 파주군 교하면 서패리(돌꼬지)에서 태어나 1910년(순종 4) 70평생을 지나는 동안 고종때 중관내시(中管內侍)로서 봉직하게 되었으나 천성이 강직하고 근심하여 총애를 받아 승전색(承傳色)을 거쳐 내수장번(內需長番)으로 승격, 따라 순종때에는 승록대부지내시부사(정일품)를 지내다가 1905년(경술)민중정 살해사건에 이어 500년 종사를 일본에게 양여 한일합병 한다는 조서를 전국에 포고하자 이런 비보에 통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여러 충신들과 함께 지하에서 27대 군주를 모시겠다는 일념과 2천만 동포들의 단결에 의지를 받아 명숙죽백하시기를 복원한다는 요지의 유서(결사계시문)를 써서 몰래 품에 품고 당하리에 사는 숙부인 홍택주(洪宅柱)지사에게 가서 절고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도에서 품었던 글을 삼다리 장터 게시판에 걸고 배를 찢러 내장이 나오게 하고 순절하면서 내외관 관칙에 귀천은 비록 다를지라도 군은(君恩)을 수십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임금이 뜰에 내려섰는데 내 어찌 가히 편안함을 취하여 난방에서 죽으리오 하고 유언을 남긴 후 1910년 8월 2일(계유)사라지니 인근 주민들은 애통해 마지않으며 이는 만고에 충절이라하고 찬사를 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비보를 들은 순조계서는 이를 가상히 여기고 국장으로 본군 교하리 신촌리 산 75번지에 안장하였다.

그후 이를 추모하는 아래 인사들에 의해 1937년(경축) 6월 비각을 세웠으나 공의 후손인 관리자(교하면 서패리)양손자 김광현은 형세가 어려워 묘소의 산지를 매각하고 죽었으나 후계자인 김광열 역시 가정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산주 허 옥의 증언에 의하면 순국지사의 묘소로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니 심혜가 간절할 뿐이며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라 한다.

潘學榮 節死日 揭市文 翻譯

交河郡 石串面 西牌리에 사는 前內侍 潘學榮은 大韓民國數千萬同胞에 卽告하니 閔中殿被害는 前古에 없는 바로 우리 臣民이 痛入骨髓하야 晝夜로 報讐하기를 바라던 中 今日에 五百年 宗社를 日本에 誇與하는 數數를 廣告하니 우리階下에서 어찌 이러한 詔書를 내리셨으리오 自由로히 僣仰屈伸을 못하시는 故로 統監과 逆臣들의 所爲라 日本이 攻擊을 아니하되 敗하고 우리가 戰爭을 아니하고도 근하니 더욱 痛嘆하도다. 이 內官은 生家二十世와 養家十六世가 代代로 國祿之臣이었으니 어찌 二君의 臣民이오 國이 亡하면 臣이 亡함은 自古로 있는 일이라 내가 伏劍而死하야 義士閔泳煥忠貞公과 其時에 義死한 여러忠臣과 함께 地下에서 二十七代 君王을 섬기리니 數千萬同胞는 血心으로 團結하여 예전 王孫家の 忠誠을 본받아서 名垂竹帛하시기를 千萬바라나이다.

七十老宦 潘學榮은 百拜 謹告

庚戌 八月 日

승록대부 지내시부사 반공묘표

경술년(주: 1910년 일제합병시) 추 8월 2일 계유에 대한제국

승록대부 내시부지사 학영이 충절에 죽으니 그때 나이가 일흔이었다.

파주 신촌(주: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신촌리) 마을을 택하여 서남향의 언덕에 장사지낸지 어언 28년(주: 1938년)이 지났어도 아직 충절을 높이는 글이 없기 때문에 옛날 동지들이 큰 절개가 감추어져 들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비석을 다듬어 놓고 나에게 비문을 청하였다.

나는 공과 더불어 같은 조정에 시무 하면서도 항시부서가 달라 일찌기 어울려 알지 못하였으나 계묘년(주: 1903년 고종 40년 광무 7년) 효종황후(주: 헌종의 계비)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 공은 도설리(주: 제사준비 책임자, 내시 부지사의 별칭)가 되었고 나는 향관(제관)이 되어 국상의식을 함께 주선하게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서로 좋아하기를 3년 동안이나 되었다.

그가 순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마음속으로 한없이 탄식하며 비통하였는데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잊지 못하게 되어 비록 글재주는 없더라도 그 어찌 차마 비문 응낙을 하지 않겠느냐.

공은 영평인 한림학사 서(淸州: 중시조의 명)의 후손으로 장황제(주: 철종을 추종하여 부른 말) 8년 정사년(주: 1857년, 철종 8년)에 처음으로 관직에 들어가 그후 품계가 1품에 이르렀다.

대개 그 사람됨은 조심하여 삼가하며 신중하였고 법도대로 따라 어기지 않았으며 두 왕을 섬김에 있어서 항상 가까이 모시었음에도 일찌기 조그마한 실수나 과오도 없었다. 성격 또한 경계(주: 깨끗하고 절도있음)하고 정직해서 궁인들을 눈여겨 보지도 않고 권문에도 드나들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동료라 할지라도 만약 왕의 충애를 믿고 제멋대로 하는자는 또한 발걸음을 끊어버렸다.

무릇 공사를 청탁하여 이익을 꾀하는 일은 하나도 마음에 둔 바가 없었으며 다만 박봉으로서 스스로 가족을 돌보면서 집안의

곤궁함을 면할수 없어도 항상 편안하였다.

평생에 문학으로서 자만한 적이 없으나 그 마음가짐의 마땅함과 행동거지의 독실함이 비록 제(齋)나라와 노(蘆) 나라와 훌륭한 선비라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함이 있을 것인가!

갑오 을미년(주: 1894 ~ 1895)부터 왕실이 다난하고 내우외환이 겹치어 국가 대세가 크게 흔들리니 공의 걱정한 마음은 불타는 것과 같았고 이 세상이 미련을 두지 않는 것 같았다.

나라의 제도가 바야흐로 끝나자(주: 을사조약 체결을 의미함) 파주 전사(田畝)로 내려가 있다가 일제에 조선합방을 8도에 포고하니 공은 비분을 격앙하여 주야로 호곡하고 수일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이내 유서를 작성하여 일제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대의를 천명하고 이를 삼교장터의 시장문에 내어 건 다음 드디어 길가에 자결하여 그 순국의 뜻을 이루니 오호 열사로다.

인간의 정리로서는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슬퍼하지 않음이 없건만 죽음을 혹은 태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함이 어찌 공과 같은 사람을 일컬음이 아니겠는가.

나무의 무성함은 만고에 변치않고 신하로서 나라를 위한 죽음이 그 맑고 밝은 빛남은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빛을 다루니 공의 이러한 죽음을 가히 슬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스스로 돌아보건데 더럽고 때가 끼어 구차하게 살며 파리한 목과 누런 얼굴은 일찌기 나무와 돌만도 못하니 이런 나의 삶을 가히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으로 말하자면 나는 죽었다고 말하여야 하고 공은 살아 있다고 일컬어야 할 것이니 어찌 감히 공을 슬퍼할 것인가. 내가 실로 스스로 슬퍼해야 할 따름이다.

배(주: 부인)는 이씨로서 본관이 전주이며 자자손손들은 그 부조의 뜻을 계승할지이다.

비명(牌銘)은 이르되

파주의 큰 피여 충신의 유택이로다.

돌은 달아 없어져도 그 이름은 영원하리라.

정축년(주: 1937년) 하(夏) 6월 일立

통정대부 전비서원승 김영한 짓고,

승록대부 전판돈영원사 윤용구 쓰다.

승록대부지내시부사 반공묘 비명

1937년 6월 일 건립

발기인 통정대부 최봉화(崔鳳和)

통훈 // 하용화(河龍和)

// // 이장현(李章炫)

// // 이시영(李時英)

찬조인 승록 // 양설기(梁尙基)

김세욱(金世旭)

// 나세환(羅世煥)

// 홍택주(洪宅柱)

// 양준상(楊濬尙)

가의대부 최석두(崔錫斗)

가선 // 이용환(李用煥)

통훈 // 이병직(李秉直)

崇祿大夫內侍府事 潘公墓表

歲 庚戌秋八月二日癸酉 有韓 崇祿大夫知內侍府事 潘公學榮 死於忠
時年七十 卜坡州 新村鄉 坤向原而歲之今焉 二十有年 尚無揭德之辭
故舊之同志者 恐其大節之晦而不章 相與揮金 斲石讀銘于 余與公 同朝
而有內外之不同 未曾結識迨 癸卯孝定皇后之喪也 公爲都 嶺里 余爲亭
官 同周施珍 駿奔之班 始與之相好者三年 自聞其死忠心 烏嗟痛愈久而
愈不忘雖不文基 何忍嘿諸 公 永今人翰林學士胥之後也 皇帝八年丁巳

始入仕 階至一品 蓋其爲人 小心謹慎 矩歷事兩朝 常倚近密 而未曾有微生目薄過性 且耿介正直 不昵紅袖 不躡權門 雖同儕乎 若有怙寵肆志者 亦絕跡焉 凡般公規利之事 一無所顧 只以薄俸 自資家人 不免內困而常晏如也 平生不以文學 自任然其秉心之 且制行之篤 雖齊魯大儒 豈有過此者乎 一自甲乙 王室多難 外虞內訌 大勢板蕩 公憂心如燬 無人世之戀 國制甫關 歸差坡州田舍 及提封 既竝播告八埏

公悲憤激昂 晝夜號哭 絕粒者數日 乃作遺書 以明其罔僕之義 張于插橋之市門 遂伏劍於道側 以成其志 烏乎烈哉 常情 莫不樂生而哀死 死成 有重於泰山者 豈非若公之謂 叔樹綠 常於萬石 爲人臣之大防 炳炳烺烺 爭日月之光 是可曰哀乎 自顧渙浥苟活者 枯項黃馘 曾木石之若是 可曰樂乎 以此言之 謂余爲死 而謂公爲生 易敢哀公 余實自哀也

己配李氏 籍全州 有子孫 繼父祖之志云 銘曰

坡州嶽嶽 忠臣攸宅

石有時磨 名則不泐

崇祿大夫和內侍府事承傳色潘公學榮之墓 貞敬夫人全州李氏 祔左
發起人

通訓 鄭基東，通政 崔鳳和，通訓 河龍和，通訓 李章炫，

通訓 李時英

贊助人

崇祿 梁高基，崇祿 金世旭，崇祿 羅世煥，崇祿 洪宅桂，

崇祿 楊濬商，嘉義 崔錫斗，嘉善 李用煥，通訓 李秉直

파주지역 의병 봉기

당시의 의병 활동은 제1기로 고종 32년(1895) 민비의 시해, 단발령(斷髮令)에 대항한 것이고, 제2기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며, 제3기는 고종의 양위(讓位)와 군대 해산에 반발한 것이다. 특히 군대 해산으로 해산된 군인이 의병으로 가담되어 신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활약이 치열하니 일본이 의병을 진압하는데 5년이 소요된 것이다. 본군 지역에 의병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재구(李載九)의 관동군(關東軍) 6천명, 이강년(李康季)의 호서군(湖西軍) 5백명, 허위(許蔭)의 경기군 2천명, 권중식(權重植)의 해서군(海西軍) 5백명, 방인관(方仁寬)의 관서군(關西軍) 1백명, 정봉준(鄭鳳俊)의 관북군(關北軍) 1백명, 문태수(文泰洙)의 호남군(湖南軍) 1백명이 1905년 12월 경기도 양주를 근거지로 대집단을 이루고 전군을 24진으로 편성, 총대장에 이인영(李麟榮), 군사장에 허위를 내세우고 서울 탈환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훈련의 부족과 무기의 부족으로 동대문 밖에서 패전하고 그 후로는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본군의 의병 활동〉

본군에서 봉기한 의병 활동은 1907년 9월에서 1908년에 이르기까지 전후 4차례가 있었는데

① 1907년 9월에 파주, 적성방면에서 조인환(曹仁煥), 권준(權俊), 왕회록(王會錄), 김진묵(金溱默) 등 약 1,000명이 봉기하여 일군 제51연대 전변(田邊) 대위가 인솔한 보병 1중대와 산포병(山砲兵) 1소대, 공병 1분대, 보병 52연대 1중대 등 병력의 공격으로 의병이 약간의 손해를 입고 다른 지방으로 후퇴하였으나 재차 봉기할 기세였다.

② 1907년 10월 왕회록의 4백명이 적성 부근에서 봉기하였으나 일군 제50연대 제8중대의 공격으로 의병 본부인 심원사(深源寺)가 소각되었다.

③ 1908년 1월 임진강 유역 일대에서 허위등 4백명이 봉기하여 일군의 황주, 해주, 서흥 등지의 수비대의 공격을 받았으나 굴하지 않고 1908년까지 계속 활약하였다.

④ 1908년 4월 허위, 김수민(金秀民) 등 5백명이 계속 임진강 유역 일대에서 일군과 싸우다가 허위등이 체포되었다.

이상 본군에서 활동한 의병중 특히 허위는 임진강을 본거지로 2년간을 활동하였으며 허위의 휘하에 본군 출신 의병으로 정용대(鄭用大), 경현수(慶賢秀) 등이 활동하였다.

○ 허위(許薦)

1985(고종 22) - 1907(융희 1)

호는 왕산(旺山)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일찍부터 병법에 능하여 1897년 의병장이 되어 선산, 금산 등지에서 싸우다가 왕의 밀서(密書)로 중지하고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켜 경기도 지방에서 활동하며 군사장(軍師長)이 되어 서울을 함락하고 통감부(統監府)를 격파하려다가 동대문 밖에서 패하고 다음해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처형되었다. 1962년 대한 민국의 건국 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 중장(重章)을 받았다.

상기한 바 허위는 파주 인물은 아니나 임진강유역 파주에서 활동하였고 그의 지시를 받아 파주 사람이 많이 의병에 참가하였기에 이에 소개한다.

○ 정용대(鄭用大)

본적: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남경신리 주소: 본적과 같음

운동명: 의병

포상 훈격: 국민장(國民章)

공적 사항

○ 1908년 2월 을사 조약(乙巳條約)에 대한 의분으로 경기 지방에서 의거, 의병을 수백명 모집, 그의 장이 되어 적성, 교하, 풍덕, 김포, 통진 등지에서 병력의 지휘하여 동년 2월 27일~3월 2일 일본 헌병대 및 경찰대와 교전한 사실이 있

고, 계속 적성, 김포 등에서 군량미 및 금품을 징발 전쟁 준비를 하다가 1909년 10월 28일 체포되어 경성지방 재판소에서 사형이 언도되어 항소(抗訴)하였으나 원판결 확정으로 형이 집행되어 1910년 순국하였다.

〈독립 운동사 자료집 별집 98판결문〉

○ 경현수(慶賢秀)

본적: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객현리 주소: 본적과 같음

운동명: 의병

포상 훈격: 대통령 표창

공적 사항

○ 1896년 음 3월 10일 허위(許薦)의 지시에 따라 청국 혁명단(淸國革命團)에 구원을 청하는 밀서를 지참 청국에 전달하였음.

〈독립 운동사 자료집 제2집〉

○ 1905년 12우리 평북 용천(龍川)을 중심으로 김덕원(金德元), 김두섭(金斗燮)과 같이 의거하여 이봉학(李鳳鶴), 이인순(李麟淳), 이상린(李相麟), 유동희(柳東熙), 이극(李戟), 현학표(玄鶴表), 김일제(金一濟), 진창렬(陳昌烈), 이범석(李範錫), 강윤희(姜允熙) 등 유림생(儒林生)과 같이 궁문(宮門) 밖에 가서 글을 올려 일인(日人)의 횡포와 을사보호 5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다 연행됨.

〈독립 운동사 1권〉

○ 권중삼(權重三)

본적: 적성면 자장리

운동명: 의병

활동 사항: 28세 때 융희 2년(1908) 9월 22일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피검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근거: 「한국 독립운동사」 별책 1권 19면(파주 3·1운동 기념 사적지에서)

○ 백영현(白永鉉)

본적: 천현면 갈곡리

운동명: 의병

활동 사항: 의병 활동을 하다가 징역 5년에 처하다. 언도일은 융희 3년(1909) 8월 20일, 당년 27세

근거: 「한국 독립운동사」 별책 1권 112면(파주 3·1 운동기념 사적지에서)

한편 의병들은 국내에서 또는 조국을 떠나 만주로, 중국으로 또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의병 활동은 1913년까지 소규모이며 산발적인 활동으로 7~8명의 소부대가 헌병 분소나 경찰 주재소 등을 습격 파괴하였다. 일본은 이들 의병을 체포하기 위하여 현상금을 내걸고 헌병으로 특별 수색대를 조직하여 체포, 총살, 교수형 등 모진 형벌을 가하였다. 이에 견딜 수 없어 국외로 망명한 의병들은 독립군을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본군의 의병 활동은 어떠하였던가. 파주 3·1운동 기념비 사적지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 송금종(宋今宗)

조리면 죽원리(대원리), 27세 때 의병 활동 1913년 7년 징역

○ 김은중(金殷中)

파평면 마산리, 23세 때 의병 활동 1913년 7년 언도

○ 윤치대(尹致大)

천현면, 35세 때 의병 활동 1913년 5년 언도

○ 이용현(李容鉉)

조리면 봉일천, 22세 때 의병 활동 1913년 7년 언도

○ 김윤중(金潤鍾)

천현면, 43세 때 의병 활동 1913년 7년 언도

○ 이대유(李大孺)

광탄면 두만리, 53세 때 의병 활동 1914년 2년 5개월 언도

○ 정홍준(鄭弘俊)

임진면 문산리, 33세 때 헌병 보조원 오성문(吳聖文)을 살해하고 교수형에 처해지다.

(1911년 3월 20일) (이상은 한국 독립 운동사 자료집 별책 참조)

○ 장명산(長命山) 사건

한일 합방으로 민심이 흉흉할 즈음 교하군에 초대 군수가 발령되었다. 국가가 멸망되고 국민이 울분에 차 있을 때 일제의 관원이 되었다면 친일 분자에 틀림

이 없었다. 교하군민은 새로 부임하는 신임군수 윤기섭(尹岐燮)에 대하여 극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신군수를 화형(火刑)에 처하려 하였던 사건이 장명산 사건이다.

교하 김사열(金思悅)은 동지 10여 명과 송헌섭(宋憲燮)집에 모여서 신임 군수 윤기섭을 화형에 처할 것을 결의하고 교하군민에게 통문을 돌렸다. 즉 「집집마다 1명씩 장작 한개씩을 가지고 장명산으로 집합하라」하였다. 즉 일본 경찰이 모르게 사발 통문을 돌린 것이다. 수만의 군민이 장명산에 집결하였다. 각자 가지고 온 장작을 모아서 불을 놓고 그 뒤에 신임 군수를 넣어서 불로 태워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경이 미리 탐지하고 총격을 가함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 유용(柳瑢) 등이 체포되어 대마도(對馬島)로 끌려가서 가진 고초를 겪었다. 현 생존자 유영(柳瑛)씨의 증언이다. 이 사건은 일제에 항거한 민중 봉기였다. 자료가 없어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으나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전군민이 합심, 친일 분자인 신군수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지도자 김사열은 1872년에 나서 1940년에 죽었는데 야동리 두문동에 묘가 있으며 1894년~1896년 탁지부주사(지금의 재무부) 직원으로 있다가 을사 보호조약 후 관직을 버리고 야동리에 돌아와(지금 교하국민학교 자리) 사립선성학교(私立宣城學校)를 설립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3·1운동전개〉

제1차 세계 대전 중 1918년 1월 8일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 주의(民族自決主義)를 주장하였다. 민족 자결 주의란 각 민족이 자기의 정치적 조직이나 또는 귀속문제(歸屬問題)를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임의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주의로 제1차대전 강화원칙 14개 조항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식민지와 약소 민족은 이 자결 주의에 강한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본래 월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주의 이념을 밝힌 것은 1916년 5월 27일이었다. 이 이념은 당면한 어떤 구체적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본 이념으로 제창되었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맨 처음 큰 반응으로 보인 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이었다. 1917년 노르웨이, 스웨덴 에이레 등에서 주축이 되어 14개국 약소국 동맹회의가 개최되고 한국 대표로 박용만(朴容萬)이 참석하였다.

1918년 11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재미한인 전체 대표자 회의(在美韓人全體代表者會議)가 소집되고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로 이승만(李承晩), 민찬호(閔瓚鎬), 정한경(鄭翰景)을 파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중국 상해에서 여운형(呂運亨)의 활동으로 김규식(金奎植)이 민족대표로 파견되었다.

한편 재일 한국 유학생들은 1919년 2월 8일 조선 청년독립단(朝鮮靑年獨立團)을 조직하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1919년 1우려 22일 고종 황제께서 밤중에 밤참을 드시고 급서하지 일언의 독살임이 밝혀져 국내 민심은 흥흥하게 되었다.

이에 천도교(天道敎), 기독교, 불교 등 33인 민족대표가 3월 1일 고종 황제의 인산(因山)때를 기하여 독립선언문을 전국, 전세계에 발표하고 독립만세를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은 붓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수원의 화수리(花樹里)사건, 제암리(提岩里)사건 등은 대표적인 것이다. 3·1 운동의 피해 통계를 저들의 통계를 빌려보면,

피살자 7,645명 체포 49,811명 교회당 파괴 59건

부상자 45,562명 가옥 파괴 724호 학교 파괴 3건

등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피해는 이것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고장 파시에서는 어떠하였던가.

○ 파주군 주내면 봉서리 128 南坡(朴贊翊)선생은 명치17년생으로서 명치42년 독립운동에 참가 상해로 망명 중국 요인간에 신망이 두터워 남경시 당부 선전부 국제과원이 되어 남경, 상해 만주 등지를 왕래 동지들과 연락망을 구축 현재 광복회장으로 있는 아들 朴英晩과 같이 맹렬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투사이며

○ 또 파평면 늘노리 226 金貞煥(卓洙, 有正, 鎭五)선생은 명치 35년 13월생으로 소화 6년 개성공산당 사건의 관계자로서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다 귀국을 못한 투사이다.

○ 〈매일신보 1991. 3. 22〉 파평면 파평산중에서 의병장 許薦가 1908년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매치하였던 火繩銃2정을 발견하였다 하며 〈매일신보 1991. 5. 23〉 李敬七, 尹致成 李順陽 成仲業 등은 의병장 延基羽의 부하로 활동하다가 교하에서 체포되었다.

◎ 파주 3·1운동을 주도하신 분

심상각(沈相恪), 김웅권(金雄權), 권중환(權重煥), 박우용(朴禹鏞), 백익수(白翼洙), 심의봉(沈宜鳳), 염규호(廉圭鎬), 유영(柳瑛), 윤두영(尹斗永), 윤홍섭(尹弘燮), 이근영(李根永), 이남기(李南基), 이문섭(李文燮), 이영진(李泳震), 이종구(李宗九), 이학로(李學魯), 황유현(黃裕顯), 황병주(黃秉周), 황학주(黃鶴周)

◎ 희생하신 분

강복산(姜福山), 김남산(金南山), 노동식(魯東植), 박원선(朴元善), 안동환(安東煥), 안명환(安明煥), 오준상(吳俊相), 이남기(李南基), 정시화(鄭時和), 최홍주(崔弘柱)

◎ 옥고(獄苦)를 당하신 분

김동석(金東哲), 김우중(金宇中), 김창실(金昌實), 남동민(南東敏), 남정채(南廷採), 염규호(廉圭浩), 유극로(兪極老), 유화진(兪華鎭), 윤홍섭(尹弘燮), 이기하(李起河), 이인옥(李仁玉), 이주택(李柱宅), 임명애(林明愛), 정갑석(鄭甲石), 정봉화(鄭奉和), 정천화(鄭天和), 정영의(鄭永義), 조무쇠(曹茂釧), 한은동(韓殷東), 황의동(黃義東), 황인수(黃麟秀)

◎ 한일 합방 당시 활복 자결하신 분

교하면 반학영(潘學榮)

◎ 교수형을 당하신 분

문산읍 문산리 정홍준(鄭弘俊)

◎ 한일 합병 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옥고를 당하신 분

권중삼(權重三), 김윤중(金潤鍾), 김은중(金殷中), 백영현(白永鉉), 송금중(宋金宗), 윤치대(尹致大), 이대유(李大儒), 이용현(李容鉉)

◎ 한일 합방 이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로로 망명 임시정부에 참가하신 분

김웅권(金雄權), 박찬익(朴贊翊-임시정부 내무장관), 심상각(沈相恪), 홍종만(洪鍾萬), 황유현(黃裕顯), 황병주(黃秉周)

서기 1978년 3월 1일 이승영(李崇寧) 근찬(謹撰)

◎ 파주 3·1독립 운동사

본 조사는 1977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규환(李圭煥), 이상진(李相鎭)이 조사한 바와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 공능시장(恭陵市場)의 만세운동

「한국 독립운동」자료집(권2, .227)에 의거하면 1919년 3월 27일 양일간 공능장터에서 만세를 제창하다가 피살 3명, 부상 3명을 냈다.

동서 권2, p.557에는 역시 같은 날 7명이 체포되어 1919년 6월 6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는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성 명	년 령	징 역
광탄 발랑리	조무쇠(曹茂釧)	26세	8월
"	이인옥(李仁玉)	28세	"
"	남동민(南東敏)	24세	"
"	정천화(鄭天和)	31세	"
"	정갑석(鄭甲石)	26세	"
"	이기하(李起河)	22세	"
"	정봉화(鄭奉和)	28세	"

공릉 장날의 만세 사건은 심상각(沈相恪)의 주도하에 김웅권(金雄權), 권중환(權重煥), 심의봉(沈宜鳳), 이근영(李根永), 이종구(李宗九), 유영(柳瑛) 등이 주동이 되어 광탄면 발랑리에 본부를 두고 대표 19명이 모의하고 본 군내는 물론

고양군 일부까지 포함 공릉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하였다. 이 날 7천여명이 참가하여 만세의 대행진을 벌였으나 총살자 6명, 부상자 70여명을 내는 대참사가 벌어졌으니 총살자는 다음과 같다.

광탄면	박원선(朴元善)	광탄면	정시화(鄭時和)
"	안명환(安明煥)	조리면	안동환(安東煥)
"	노동식(魯東植)	천현면	김남산(金南山)

피살자 중 특히 김남산(金南山)은 힘이 장사였다. 부모의 묘소에서 사초를 하다가 연락을 받고, 동생 김금산(金金山)에게 하던 일을 맡기고 태극기를 선두로 행진하다가 공릉 장에서 참살을 당했다. 이 사실을 우종하(禹鍾河)씨, 이규하(李圭夏)씨 및 천현면민 다수가 애석하게 여기고 있는 터이다.

◎ 주내 임진의 만세운동

「독립 운동사」 권2, p.236에 1919년 3월 26일 주내면 파주리와 임진면 문산리에 3·1운동 만세 사건이 있었다. 당시의 주동자는

이학로(李學魯), 백기수(白冀洙), 박우용(朴禹鏞), 이영진(李泳震), 황학주(黃鶴周), 윤홍섭(尹弘燮) 등이고, 피살자는 이기남(李基南) : 당시 20세,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윤홍섭(尹弘燮) : 27세 징역 1년 김정중(金定中) : 29세 징역 8월 등이다. 이는 참가자 김완기(金完基)씨의 증언이다.

◎ 교하의 만세운동

「독립운동사」 권2, p.226에 의하면 1919년 3월 27일 청석면 다울리와 와석면 교하리에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없고 생존자 유영(柳暎)씨에 의하면 당시 피살자는 교하면 당하리 최홍주(崔弘柱) 25세, 오준상(吳俊相) 24세이며 부상자는 많았다 한다.

◎ 천현면 법원리의 만세운동

「독립운동사」 권2, p.236에 의하면 천현면 법원리에 1919년 3월 29일 30일 양일간 만세운동의 기록이 남아 있다. 우종하, 이규하씨에 의하면 공릉장에서 피살된 김남산(金南山)의 장례를 끝낸 후 황유현(黃裕顯), 이문섭(李文燮), 윤두영(尹斗永), 황병주(黃秉周) 등이 주동이 되어 문산방면으로 행진하다가 선두의 태

극기수가 피살되었다 한다. 또 강복산(姜福山)이 피살되고 황병주(黃秉周)는 해외 망명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 황의순(黃義順)씨가 봉사하고 있다.

◎ 실행을 받은 분(한국 독립운동사 권5, p.61)

○ 황의동(黃義東)

주소 : 탄천면 범흥리 198 징역 : 6월

연령 : 22세, 7월 13일생 선고 : 1919년 9월 6일

직업 : 중동 중학교 2학년

○ 남정채(南廷彩)

주소 : 탄천면 범흥리 490 징역 : 8월

연령 : 19세, 3월 23일생 언도 : 191년 9월 6일

직업 : 중동 중학교 2학년

○ 이주택(李柱宅), 한은동(韓殷東)(장파리 이능우, 한재동 증언)

1919년 3월 28일 과평산 봉현동(烽峴洞)에서 만세를 주동하다가 징역 6월을 받음.

○ 김동석(金東哲)

3·1운동 당시 17세로 선린 상업학교 2학년 재학 중 고향인 교하리에 와서 면선전책(面宣責)으로 교하면 사무소 등사판을 빌려 비밀 장소에서 통문을 인쇄하여 면 전역에 살포하여 면민 설득을 하다가 구금되어 징역 3년을 언도받고 형기 만료 후 출옥하였다. 일제하에서 항시 요시찰인으로 감시를 받다가 구라파로 망명, 독일에서 철학 박사의 학위를 받고 해방 후 귀국하여 미군정청에서 무역국장을 역임하다가 6·25동란으로 납부되어 현재 생사불명이다. 유족으로 장남에 김춘환(金春煥)이 시흥군 서면 광명리에 살고 있다.

○ 염규호(廉圭浩)

3·1운동 때 37세로 부인 임명애(林明愛)여사와 같이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았다. 교하리에 살다가 86세로 별세하였다. 유족으로 염홍선(廉洪善)씨가 있다.

임명애는 징역 3년을 받았다.

○ 유화진(俞華鎭)

탄현면 법흥리 출신으로 당시 21세 선린 상업 3년생이다. 동지 7명과 같이 호창원 능직이 집에서 한달간 모임을 갖고 비밀리에 태극기를 제작하여 독립선언문과 같이 각처로 배부하다가 구속되어 6월 징역에 2년 6월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족에 장남 유태길(俞泰吉)이 있다.

○ 유극로(俞極老)

탄현면 법흥리 출신으로 19세 때 선린 상업학교 3학년 재학중 유화진과 같이 동지 7명과 태극기 수천장과 독립선언문을 배부 중 남대문 시장에서 검거되어 8월 징역 3년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 김창실(金昌實)

교하면 교하리 왜가리골 연자매 방아간에서 주민들과 만세를 부르고 주모자로 검거되어 6월 징역을 받았다. 유족에 김정기(金正起)씨가 있다.

○ 정영의(鄭永義)

아동면 금촌리 사람으로 공릉장 만세 때 선두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총탄을 맞고 병원에서 3년 가료를 받았다. 유족에 정원조(鄭元朝)씨가 있다. 이순성(李舜成)씨 증언.

○ 황인수(黃麟秀)

교하면 동패리 사람으로 임시 정부의 요인과 접선하여 독립자금을 모금하다가 1919년 검거되어 9월간 옥고를 치렀다. 당시 36세였고 유족은 황원성(黃元性)씨이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조선 총독부는 한국민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하여 모든 헌병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혹독한 고문을 가하며, 내란죄를 적용 엄법에 처하였으므로 광복운동은 표면적으로 할 수 없어 지하운동으로 변모하여 갔다.

광복운동을 대별하면 을사보호조약 이후의 의병운동을 계승하여 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독립군(獨立軍)의 조직이고, 하나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민 각자의 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일제의 기반을 벗어나려는 문화운동 등 두가지 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군의 독립운동 인사 중에는 대동단(大同團) 사건의 최창섭(崔昌燮), 임시정부 사건의 박찬익(朴贊翊), 광복군의 박영준(朴英俊), 조선어학회 사건의 정태진(丁泰鎭) 등이 뚜렷한 인물이다. 이하 차례로 서술키로 한다.

○ 최창섭(崔昌燮)

본적 :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서침리 170 포상 훈격 : 전국 포장

주소 :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교문리 314 공적사항

운동명 : 대동단(大同團)

1919년 조선민족 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에 입단하여

1920년 상해 임시 정부(上海臨時政府)로부터 군자금(軍資金) 모금지령을 받고 1차 2만원, 2차 기천원의 자금을 모금하여 상해임시 정부로 송금한 바, 그 후 체포되어 10년 징역을 수형(受刑)하였음.(원호처 공적조서 참조)

그러면 대동단이란 무엇인가 대동단은 1920년 전협(全協), 최익환(崔益煥) 등이 조직한 단체로 일진회(一進會)의 회원이었던 전협과 최익환이 귀족, 관료, 유생, 학생, 의병, 승려, 여자, 보부상(褸負商)등 각계 각층에 수 많은 단원을 포섭하고 인쇄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면서 대동신문을 비밀리에 발간하였다. 한편 전 법무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을 고문으로 삼고 의친왕(義親王)의 승인을 얻어 선언서를 인쇄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연락하고 애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열국에 호소하는 길을 얻기 위하여 김가진은 먼저 상해로 출발하고 의친왕이 상북으로 가장 상해로 갈 목적으로 안동(安東)까지 갔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많은 단원이 투옥되었다. 전협은 10년, 최익환은 5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사건은 의친왕의 망명 계획에 대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 박찬익(朴贊翊)

본적 :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 훈격 : 국민장

주소 : 미상

공적 사항

운동명 : 임시정부 사건

1884년 1월 2일 본군 주내면 파주리에서 명문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학문을 수학하다가 1904년 관립 상공학교(官立商工學校)에 입학하였으나 항일 사상일꾼어 학생들간에 본격적인 항일 운동을 모의하다가 퇴학당하였다.

1906년 안창호(安昌浩), 이시영(李始榮), 이회영(李會榮), 이동영(李東寧), 신채호(申采浩) 등이 조직한新民회(新民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08년 4월 11일 다시 관립 공업 전습소(官立工業專習所)에 입학하여 1910년 졸업하였다. 그해 8월 29일 치욕의 한일 합방이 조인되니 동지 박승익(朴勝益), 김원근(金遠根), 조열(趙烈), 심권(沈權) 등과 함께 열렬히 반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모의하다가 왜경에 발각되어 탄압이 심하여지자 동년 겨울 만주의 용정(龍井)으로 망명하여 북간도(北間道)에서 혁명선배인 이상설(李相畝), 백순(白純) 등의 지도를 받는 한편 대종교(大倮敎) 도유사(道有司) 라철(羅喆)의 권유로 대종교에 입교하였고 교육을 통하여 민족운동 선양을 목적으로 우선 중국 관립학교의 교원이 되었다.

1912년 드디어 뜻을 이루어 중국 관현의 지원을 얻어 화룡현(和龍縣), 삼도구(三道溝), 청파동(靑坡洞) 한인학교(韓人學校)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다. 이때부터 다각도로 활동하였으니 때로 김좌진(金佐鎭)장군을 접촉하면서 직접적 투쟁에 가담하였고 대종교 정교(正敎)직을 맡아 보면서 열을 다하였다.

당시 만주에 있어서 대종교의 세력을 일취 월장하여 일경의 방해가 극심하여지고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은 중국 성정부(省政府)도 이를 저지코자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인 교육감의 소개로 당시의 성장(省長)이며 독군(督軍)이었던 장작상(張作相—張作상의 아우)를 만나 대종교 운동은 하나의 민족운동이며 곧 한국의 독립운동임을 설득하여 북간도 지구만은 그 화를 모면하게 되었다.

1915년 중국인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되어 중국인 교육 위원회 위원에 파선되었고 성장과의 담판으로 대종교 탄압이 완화되니 일경의 주목이 심하여 북간도

를 떠나 길림(吉林)으로 피하였다. 상해에서 신규식(申圭植)과 제휴하여 중국의 혁명과 한국의 독립운동의 연대성을 확인하고 약국의 뜻있는 청년들을 지도 육성할 목적으로 동제사(同濟社)를 창립하였다. 이 때부터 북정일(北精一)이란 중국 이름을 썼다.

1918년 신규식과 함께 손문(孫文)의 북벌에 참여하여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성공함으로써 동맹회(同盟會)의 지도급 인사들과 가깝게 되어 중국의 여러 무관 학교에 한국 청년을 입교시켜 독립군 간부양성을 기하였다.

신규식의 비밀지령을 받아 서북간도(西北間道) 및 노령(靈嶺) 등지에 있는 독립지사들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국내의 3·1 독립선언은 물론이요. 동경 유학생들의 명의의 2·8선언에 앞서 길림에서 서일(徐一), 여준(呂準), 김좌진(金佐鎭), 김동삼(金東三), 신팔균(申八均), 황상규(黃尙奎), 유동열(柳東烈) 등 39인의 명의로 한국 독립을 선언하고, 선언서를 국내 및 미국 노령(靈嶺) 동지역 우송하고, 대한 독립 의군부(對韓獨立義軍府)를 조직하여 곧, 파리 회의에 전문을 보내고 독립을 청원하였다.

다음 해 3월 1일 국내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자 동월 하순 이동영(李東寧), 이시영(李始榮), 조성환(曹成煥), 조소앙(趙素昂), 김동삼(金東三), 조완구(趙完九) 등 30여인의 동지들과 같이 상해로 갔다.

1919년 4월 10일 임정 의정원(臨政議政院)의원으로 피선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임정 육성에 노력하였다. 동년 4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민대회에서 임시정부를 조직하였을 때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손정도(孫貞道), 조성환(曹成煥) 등과 같이 평정관(評政官)으로 선출되었다.

정의단(正義團) 단장 서일(徐一)이 1919년 8월 7일 왕청현(旺淸縣)에서 현천묵(玄天默), 김좌진(金佐鎭)과 대한 군정서(大韓軍政署)를 조직하여 만주에서 임시정부로 교민자치와 무장활동을 전개하자 서일총재, 김좌진 총사령관과 임시정부에서 활약하면서도 군정서의 외교처장의 중임을 맡아 임정과 군정서 사이의 외교를 전개하여 동년 12월에 대한 군정서가 임정의 산하로 들게 되어 북로군(北路軍)이라 하고 독립운동 노선이 체계화되었다.

1921년 7월 7일 임시정부 외무부 의사 국장겸 외무 차장 대리료 외교임무를 전담하여 주로 대중외교(對中外交)에 치중하였다.

동년 8월 임시정부의 재정이 궁핍하여지자 선생은 안창호(安昌浩)와 임시정부 경제후원회를 조직하여 상해 및 재만(在滿) 동포들에게 군자금을 의연하도록 권하는 한편 조소앙과 같이 중국 국민정부 요인에게 우리 독립당의 주의 강령을 설명하고 원조를 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였으며 동월 13일 태평양회의의 외교 후원회 창립총회에서 간사로 선임되어 태평양회의의 만국 교육대회, 세계 신문 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한국 독립을 선전 활약하는 이승만 임시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동년 중국 국민당의 손문이 광둥에서 중국 호법정부(中國護法政府)를 수립하자 동년 11월 18일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겸 외교부장직에 있는 신규식이 임정의 특파전사(特派專使)로 호법정부를 여방할 때 선생이 부사로 광둥에 가서 호법정부를 승인함과 동시에 호법정부로부터 임정을 정식 승인 받는 외교활동을 보좌하여 성공하자 임시정부 주광대표(駐廣代表)에 임명되고 1922년 2월 7일에 또 특파 교섭원에 임명되어 대중외교를 전담하여 활약하다가 동년 9월 9일 신규식이 서거하자 동제사(同濟社) 이사장이 되어 한중 합작 항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때부터 이름을 복순(僕純)이라 하였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의 사의 의거로 일경의 체포선봉이 일자 김구(金九)선생 및 임정 요인들을 피신시키는데 중국 정부와 교섭하여 많은 협조와 편의를 얻었으며 우리 독립운동의 실적을 중국 정부에 크게 선전하여 또한 큰 효과를 얻었는데 김구(金九)선생도 후일에 「백범일지」(白凡逸志)에서 말하고 있다.

1932년 11월 마카오(澳門)에 피신하여 있을 때 상해(上海) 동북 의용군 후원회장 왕보진(王葆眞)이 광둥으로 가던 도중 마카오에 들린 기회에 김구(金九), 안공근(安恭根)과 같이 한중 협회를 설립할 것을 건의하고 임시 정부 경제 후원회를 중한 연합 동화 의용군 대회(中韓聯合東和義勇軍大會)라 고쳐 한중 합작의 항일전을 펼 것을 정하여 본거지를 광둥에 두고 김구, 왕보진, 황명당(黃明堂)을

위원으로 하여 동북 의용군의 후원기금을 모집하는데 노력하였다.

또 광둥에 있는 한국 국민당 전위총부(韓國國民黨前衛總)를 한국 독립당 광둥 지부라 개칭하여 양명진(楊明鎭), 이식부(李植夫)를 상무위원으로 하고 중국 국민당의 보조를 받아 기관지 「한성(韓聖)」을 발행하여 배일 원중(排日援中) 공작에 전위적 활약을 하였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중국 조야에서 우리 임정에 대한 신망이 높아져 장개석(蔣介石)주석의 명을 받은 중국 국민당의 조직 부장 진과부(陳果夫)의 연락으로 1932년 5월 김구선생을 모시고 장개석 주석을 남경 군관학교 구내에서 면회케 하여 한·중 양 거두의 역사적 회견에서 다음 세가지 조건을 확약하였다.

1. 한국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줄 것
2. 중국 교육기관에서 한국청년의 교육을 해줄 것
3.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자 전원과 교포를 보호할 것

이 한중 혁명의 영수회담이야말로 한중 합작 항일전의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 협정은 8·15 광복까지 굳게 지켜졌다.

1939년 중일전쟁 때 기강(기江)에서 임시 의정원 의원으로 피선되었고 1940년 9월에 임정이 중경(重慶)으로 옮겨져 10월 국무위원에 피임되고, 학무, 법무, 선전, 생계(生計) 등 4부(部)가 중설되자 선생은 법무 부장으로 피임되어 법제정에 진력하였다.

1944년 2월 신헌법에 의하여 국무위원을 개선할 때 또다시 당선되어 임시 정부의 고문까지 겸하여 광복때까지 다사 다난하였던 전시 내각의 중책을 다하였다. 8·15광복 후 임시정부 주화 대표 단장(駐華代表團長)으로 수다한 재중 동포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여 귀국하는 편의를 돌보는 한편 만주에 가서 재만 동포의 재산보호와 영주 정착의 길을 마련하여 주었으나 적군 진주로 미쳐 귀국하지 못한 백만동포가 공산학정에 신음하게 되었다.

1945년 11월 29일 36년만에 귀국하여 김구선생의 남북 협상을 저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숙환인 위병으로 향년 66세로 별세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후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1919년 4월 11일 애국지사들이 상해에 모여서 각도 대의원 30명이 결의하여 헌장을 제정하고 4월 17일 과네즈를 선포하였다. 초대 임시 의정원 의장에 이동령(李東寧), 임시헌법 통과 후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李承晩), 1926년에 국무령제(國務領制)를 채택하고 김구(金九)가 주석(主席)이 되었다.

임시 정부에서는 국내와 연결하여 교통로의 개척, 연통제(聯通制), 공채 발행, 무관학교(武官學校)설립, 사료 편찬, 신문 발행, 파리 강화 회담에 김규식 파견, 제2차 세계 대전참전 등 공이 많았다. 김구가 주석이 된 후 이봉창(李奉昌)의사, 윤봉길(尹奉吉)의사 등이 일본의 침략에 췌기를 쳤으며 1945년 11월 29일 귀국 하였으나 국내의 혼란으로 임시 정부의 정책은 계승되지 못하였다.

◎ 박영준(朴英俊)

본적 :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 포상훈격 : 대통령 표창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충현동 공적 사항

운동명 : 광복군

• 1935년 절강성 가흥현(浙江省嘉興縣) 수주 중학(秀州中學)을 졸업하고 부친 박찬익(朴贊翊)을 도와 활동하였고 특히 청년단을 조직하여 선전 공작을 하면서 임정(臨政)과 함께 장사(長沙), 유천(柳川), 강서(江西), 귀주(貴州), 사천(四川)으로 공작을 계속

• 1937년 10월 중앙 군관 학교(中央軍官學校) 17기로 입교 후 대위(大尉)로 서남 운수 관리처(西南運輸管理處), 서강 분처(西康分處) 광복군 총사령부 총무처(光復軍總司令部總務處) 근무

• 1942년 3월 중앙군 동남구 제3전구 제2반장(中央軍東南區, 第三戰區第二班長)으로 파견 일군 이동 사항 경찰과 징모공작(徵募工作)

• 1942년 10월 광복군 총사령부 근무

• 1943년 복련, 절강, 강소, 남경, 상해(福連, 浙江, 江蘇, 南京, 上海)등지로 파견되어 정보 수집과 학도병을 광복군으로 전환시키는 공작을 함.

• 1944년 임정 재정부 이재 과장(理財課長)으로 내부 통합에 주력하면서 약산 일파(若山一波)의 임정 파괴 공작 반대에 전력.

• 1945년 3월 한국 광복군 3지대 1구대장 겸 3지대 훈련 총대장에 임명되어 군사 훈련, 정보 수집, 파괴 공작, 교육훈련 활동

• 1945년 8월 30일 개봉지구 군사 특파 단장에 임명되어 일군(日軍)에 있던 한적 사병(韓籍士兵)을 소집하여 국내인 군훈련(軍訓練)을 시키는 한편 교포들의 생명, 재산 보호에 노력하다.

• 교포들의 국내 철수 작전이 끝나자 다시 임정의 명령으로 임정 주화 대표단(臨政駐華代表團) 동북 변사처(東北辯士處)(처장 이광-處長 李光)의 외무주임(外務主任)에 임명되어 200만 만주 교포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 활동.

심양(瀋陽)에서 자위군 4개 대대를 조직 편성하여 대공항쟁을 기도하던 중에 김구의 남북협상설이 전하여지자 귀국하였다.

◎ 광복군(光復軍)

광복군과 독립군은 각각 조직이 다르다. 혼돈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먼저 독립군을 설명하고 다음에 광복군을 설명기로 한다.

독립군은 1910년 이후 해외로 망명한 우국지사들이 본래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연해주, 만주(특히 간도) 등지를 근거지로 삼았다. 이시영(李始榮), 이회영(李會榮)등 형제가 통화현 합니하(通化縣哈泥河)에 신흥 강습소(신흥 무관학교의 전신)를 설립하고 병농제(兵農制)를 써서 농사와 군사 훈련을 겸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1919년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라 개칭하고 1920년까지 2,100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외에 많은 독립 단체가 조직되었고 특히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의 독립군은 청산리(靑山里) 싸움에서 대승하였다. 그후 대한 독립군단으로 통합하여 1921년 1월에 러시아 「이만」으로 이동하였으나 러시아의 무장해제로 만주로 돌아왔으나 발부칠 곳이 없어졌다.

이 때 1940년 9월 상해 임시 정부에서 독립군을 흡수하여 광복군을 편성하게 되었다. 광복군은 1941년 12월 9일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중국군과 같이 전투하게 되었다.

◎ 정태진(丁泰鎭)(1903~1952)

본적 : 금촌읍 금능리 406번지

사건명 : 한글 학회

훈격 : 건국공로훈장 단장(국민장) 1962년

경력 : 교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경기 중학교, 연희 전문학교를 금능리에서 기차통학을 하였다.

1927년 도미(渡美)하여 우스타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원을 마쳤다. 1931년 함흥 영생(永生) 여자 고등 보통학교(여고)에서 교편을 잡다가 1941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의 한글사전 편찬위원이 되었다. 1942년 한글 학회(朝鮮語學會) 사건이 일어나자 체포되어(함흥 형무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 8·15 해방으로 석방되어 다시 한글 학회에서 한글 사전 편찬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가 발발하자 부산에서 계속 편찬사업을 하다가 수복이 되자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4권까지 교정을 마치고 식량난으로 고향인 파주로 돌아왔다가 일산 역전에서 타고 갔던 군 추력이 전복되어 1952년 11월 2일 사망하였다. 묘소는 본가 뒷산 선영(先榮) 아래에 모셨다.(서원동-書院洞)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백인 학생들이 공부 발하는 학생을 우대하는 성의 표시로 교문을 열어 주어 선생을 먼저 통과케 하였다.

또 해방 후 미군정청에 외무부 장관으로 공화국이 건립된 후 문교 장관으로 초빙하였으나 모두 불응하고 연세대의 교수로 있으면서 한글사전 편찬에 전념하였다.

저서(著書)에는 「조선 고어방언 사전」, 「고어 독본」, 「국어학 개론」 등이 있다.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공로 훈장 단장(국민장)을 받았고 유족으로 동덕 여자 대학장 정해동(丁海東)씨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 조선어학회 사건

일본어 사용과 국어 말살을 꾀하던 일제가 1942년 10우리 조선어학회 회원을 죄로 몰아 검거 투옥한 사건.

일본은 1939년 4월부터 학교의 국어 과목을 전폐하고 각 신문, 잡지를 점차 폐간하였다. 1941년 12월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

일본은 내부의 반향을 「함흥 학생사건」의 증인으로 불러 가더니 10월 1일에 이윤재(李允宰), 최현배(崔鉉培), 이희승(李熙昇), 정인승(鄭寅承), 김윤경(金允經), 권승욱(權承昱), 장지영(張志暎), 한징(韓澄), 이중화, 이석린(李錫麟), 이고루, 21일에는 이강래, 김선기(金善琪), 이병기(李秉岐), 이야자, 정백수, 김법린(金法麟), 이우식, 23일에는 윤병호, 서승효, 김양수, 장현식, 이인(李仁), 이은상(李殷相), 정인섭(鄭寅燮), 안재홍(安在鴻) 등을 검거하였다. 이듬해 초이네스 김도연(金度演), 서민호(徐民濤)를 검거 그 달 말부터 4월 1일까지 신윤국, 김종철이 불구속으로 심문을 받았고, 또 권덕규(權德奎), 안호상(安浩相)은 명중이어서 잡히지 않았다. 홍원(洪原)으로 끌려간 여러 인사들은 1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온갖 야만적 악형을 받았고,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함흥(咸興) 검사국으로 넘어 가게 되었다. 이 밖에도 혐의자. 증인 등으로 심문을 당한 사람이 50여명에 달하였다. 피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아니한다고 곽상훈(郭尙勳), 김두백을 유치장에 구금한 일도 있었으나 이들 증인 중에서는 어학회 사업을 협조. 협력한 저명한 문화인들이 많았다.

함흥 검사국에서는 범위 축소 지시에 쫓음인지 모르나 어학회 관계자를 다시 조사하여 대부분은 내어 놓고 이윤재, 한징, 최현배, 이희승, 정태진, 이고루, 김양수, 김도연, 이중화, 김법린, 이인, 정현식 등 13명만 공판에 붙이였다. 1943년 12월 이윤재가, 이듬해 2월에 한징이 각각 심한 고문과 추위와 주립에 못이गी어 옥사하였다. 그 나머지 11명은 함흥 지방재판소에서 각각 징역 2년에서 6년까지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중 정태진만은 복역함이 더 빠르겠다고 하여 복역을 마쳤고 장형식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체형을 받은 이는 공소하였으나 8·15 해방을 이틀 앞두고 공소 기각으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으로 어학회는 해산되고 국어사전 원고는 증거물로 홍원과 함흥으로 끌려 다니다가 여러 부분의 원고가 없어지게 되었다. 저서는 古語辭典, 古語證本, 國語學概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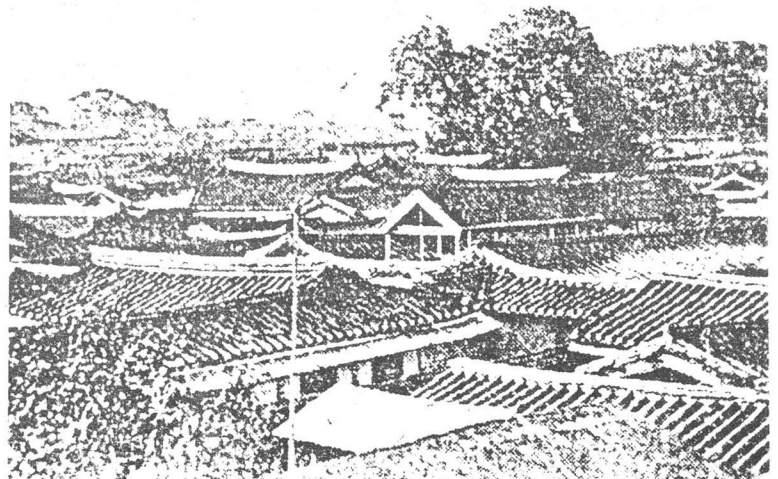
— 국사대 사전에서 —

본군 독립유공자 일람표

성명	사건명	훈격	본적지
1. 鄭 用 大	義 兵	國民章	적성면
2. 慶 賢 大	"	大統領表彰	"
3. 金 南 山	三·一運動	"	천현면 오현리 676
4. 魯 南 東	"	"	광탄면 신산리 226
5. 朴 元 植	"	"	" 166
6. 沈 相 善	"	"	" 58
7. 崔 鴻 桂	"	"	교하면 당하리 195
8. 崔 昌 變	大同團	建國表彰	교하면 서청리 170
9. 朴 贊 翊	臨時政府	國民章	주내면 파주리
10. 朴 英 俊	光復軍	大統領表彰	"
11. 丁 泰 鎮	朝鮮語學會	國民章	금촌읍 금릉리 406

高宗 황제 끝내 讓位

덕수궁의 전신 - 慶雲宮 成宗(재위:1469~1494)
 때 지은 대궐로서 원래는 慶雲宮이라고 불렸다. 사
 진은 불타기 전의 1898년 당시의 경운궁.



마지막 皇帝 純宗 高宗의 둘째 王子로 조선
 왕조의 마지막 황제에 올랐으나, 韓日合邦과 더
 붙어 王으로 격하되고 王權마저 박탈당하는 비
 운을 겪어야만 했다.

애국을 사랑하는 독립운동가의 활동

우리나라는 1910년 국은이 비참하여 일제침략으로 말미암아 수십만의 동포와 애국지사(의병과 3·1운동, 국내외 독립운동, 문화운동)들이 구국을 위하여 국내외를 걸쳐 맹렬히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용감히 사라진 용사와 쓰라린 옥고와 가진 고초를 거치면서 36년이란 기나긴 기구한 운명속에 8·15해방이란 기쁨과 아울러 만세소리가 하늘높이 진동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고장 출신(별지 독립투사 명단) 애국지사들중 대표인물로서는 1905년 일제매국대신을 앞세우고 고종황제와 여러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자 사임한 승전색반하경(承傳色潘夏慶)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매 비분한 마음을 억누를 길 없어 일제항거의 뜻으로 「국내 정부관원이 귀천은 다르다하지만 나도 임금의 은혜를 입고 지낸것이 수십년간이다. 지금 임금이 뜰아래 내려서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따스한 방에서 편하게 죽을 것이냐」하는 유서를 삼다리 장터 길가에 펴놓고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고 순국한 거룩한 국민계몽열사와 1910년 관립공업 전습소 2년을 졸업 후 안창호, 이시영, 이동녕, 신채호 등이 조직한新民회에 가입하신 박찬익선생은 민족운동을 전개 국치이후 박승익, 김원근 등과 항일운동을 하다 만주 용정(龍井)으로 망명 1912년 화룡현에 한인학교를 세우고 애국정신과 자립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신규식, 신채호, 이광 등과 박은식을 총재로 하는 동제사(同濟社)를 조직 독립운동이 중심기구로 발전 1918년 11월 길림성에서 이동녕, 김동삼, 김근현 등

39인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을 발표 후, 국내에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힘입어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 4월 10일 임시의정원의원에 피선되었다. 1932년 5월 김구와 장개석 사이에 한중영수회담을 성사시키고 임시정부 국무위원에 피선 법무부장을 역임, 해방후 임시정부 주동대표 단장으로 1948년 귀국이듬해 서울에서 병사하였으며 아들 박병준 역시 동북관사처 의무주임에 임명되어 자위대를 조직하는 등 2백만 대만주 교포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는 등 맹활약을 하였다. 또한 조선어학회 위원으로서 우리말 큰사전 편찬사건으로 문화활동을 펼친 정태진과 김응권, 심상각의 주동으로 공능장날 3·1운동만세를 제창한 19인 동지들 임진강변을 거점으로 활동한 허위와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하는등 많은 애국지사들이 국내외에서 험악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포상을 받지 못한 애국독립투사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파주군 독립유공포상자 일람표

독립유공자		생존년대	활동별	증거사항	비고
주소	성명				
적성명 마지리	康興文	1892~	3·1운동	독자(5)557, 공훈록(2) 74	
" 구읍리	慶丹		의병운동	독운(1)532, 공훈록(1)316	
			애국계몽	독자(2)242, 독운(1)170,554	
" "	慶賢秀	1861~1928	의병운동	독(문일민)28, 29, 35, 48, 67 우독공 293, 공훈록(1)136	77표
" 자장리	權俊		의병운동	독자(3)660, 700, 727, 독운 (1)500, 532, 552, 명치(1) 127, 순국(1, 2)167, 공훈록 (1)320	
" "	權重三	1881~	"	독자(別1)19, 21, 공훈록(1) 319	
법원읍 갈곡리	金南山	1894~1919	"	독운(2)198, 순국확인서(파 주군천현면장), 우독공236, 공훈록(2)89, 433	77표
교하면 교하리	金善明	1896~	3·1운동	독자(5)555, 독운(9)224 공훈록(2)102	
" "	金守德	1904~	"	독운(5)555, 독운(9)224 공훈록(2)105	
" "	金英道		학생독립운동	우독공 238	77표
광탄면 신산리	金雄權		임정활동	독운(4)300, 독(문일민)208 민족 60, 공훈록(5)312	
파평면 마산리	金殷仲	1886~	의병운동	독자(別1)32, 공훈록(1)334	

독립유공자		생존년대	활동별	증거사항	비고
주소	성명				
교하면 교하리	金昌實		3·1운동	독운(9)224, 독자(5)556 공훈록(2)126	
광탄면 발랑리	南東敏	1896~	"	독자(5)557, 공훈록(2)139	
" 신산리	魯東植 (舞山)	1981~1919	"	사실확인서 (광탄면장 : 1977.5.19) 우독공 244, 공훈록(2)142, 463	77표
파주읍 파주리	朴贊翊	1884~1949	임정활동	민족 11, 142, 151, 154, 156, 고경 120 독(문일민) 348, 353, 354, 371, 373, 375, 377, 김승학(下)146 국외용의 249 사상정세 237 무장 32, 78, 94, 사상정세 (其2)451, 36史(12)804, 36 史(13)51, 242, 278, 391, 392, 469, 483, 611, 명치 (2)20, 143, 165, 438, 480, 494, 499, 502, 602, 644, 689, 698, 737, 897, 969, 970, 664, 의정104, 107, 114, 121, 125, 243, 244, 258~262, 266~270, 278~ 282, 310, 399, 425, 517, 519, 513, 546, 569, 570, 587, 588, 633~637, 680, 689, 717, 772, 786, 849 민 족(中) 227, 235, 235, 330, 438, 747~749, 759, 765, 783, 785, 825 독운(3) 694, 732 독운(4) 109, 110, 139, 379, 387, 721, 725, 859 독운(5)187, 310, 664 독운(6)104, 544, 독자(12) 465 독자(別2)35, 396, 401 독자(別3)292, 293, 인대 우독공 110 공훈록(5)345, 596	63국민

독립유공자		생존년대	활동별	증거사항	비고
주소	성명				
" "	朴 英 俊	1915~	광복군활동	한독(5)79, 36史(13)263, 474, 514, 의정 779, 857, 858 독(문일민)357, 379, 김승학(下)150, 독운(4)930, 947, 1030 독운(6)405, 617, 우독공 150 공훈록(5)341, 955	77국민
광탄면 신산리	朴 元 善	1878~1919	3 · 1 운동	사실확인서(파주군광탄면장) 우독공 249, 공훈록(2)153, 470	21표
교하면 서패리	潘 夏 慶	1878~1910	애국계몽운동	독(문일민)72, 기로 191 독운(1)696, 인대 공훈록(1)98, 141	62국민
조리면 죽원리	裴 炳 憲		해외독립운동	민족 60 독(문일민)208, 독운(4)300, 공훈록(5)348	
법원읍 갈곡리	白 永 賢	1883~	의병운동	독자(別1)112, 공훈록(1)356	
파평면 두포리	成 樂 馨 (春景樂中)	1882~	독립군활동	명치(1)276, 280, 292 국외용의191, 공훈록(4)356	
조리면 죽원리	宋 今 宗	1882~	"	독자(別1)16, 17 공훈록(1)361	
" "	宋 海 山 (松銀山) (成省三) (金成三)	1910~	"	통사 508 민족(中) 871 독운(16)126, 128, 독운(4)774 사상정세 260, 384, 434 사상정세(其2)27, 32, 공훈록(5)357	

독립유공자		생존년대	활동별	증거사항	비고
주소	성명				
광탄면 신산리	沈 相 恪 (相 洛)	1882~1963	임정활동	사실입증서(민충식), 우독공 254, 인대민족(中)330, 명치(2)143 공훈록(2)186, 484, 공훈록 (5)363	77표
	安 鍾 根		의병운동	매천516, 공훈록(1)367	
교하면 교하리	廉 圭 浩	1881~1941	3·1운동	독자(5)555~557, 독운(2) 196, 197, 독운(9)224, 공훈록(2)196, 505	83표
적성면 구읍리	元 明 中	1884~	의병운동	독자(別1)164, 공훈록(1) 373	
탄현면 법흥리	俞 極 老	1901~	3·1운동	독자(5)84, 독운(9)179, 183, 191 독운(2)105, 독(민일민)106 공훈록(2)206	
" "	俞 華 鎭	1899~	"	독자(5)62, 독운(2)105, 독 운(9)183, 191 독(문일민)106, 공훈록(2) 207	
" "	李 求 榮	1884~	의병운동	독자(別1)45, 공훈록(1)381	
광탄면 발랑리	李 起 河	1898~	"	독자(5)557, 공훈록(2)219	
" 창만리	李 大 儒	1855~	"	독자(別1)79, 공훈록(1)383	
법원읍 법원리	李 文 燮	1874~1939	독립운동	제출자료(양성이씨)	
광탄면 발랑리	李 鳳 夏	1880~	"	독자(5)238, 239, 241, 공훈록(2)227	

독립유공자		생존년대	활동별	증거사항	비고
주소	성명				
" "	李 泳 震	1867~1937	"	제출자료(양성이씨종친회)	
조리면 봉일천리	李 容 鉉	1887~	의병운동	독자(別1)19, 20, 21, 22 공훈록(1)391	
광탄면 발랑리	李 仁 玉	1892~	3·1운동	독자(5)557, 공훈록(2)240	
적성면 마지리	李 次 寧	1923~	광복군활동	독운(6)413, 427, 619 김승학(下)335, 공훈록(5) 405, 1043	77표
" "	李 致 根	1877~	의병운동	독자(別1)119, 공훈록(1)396	
" "	李 漢 喆		"	매천 516, 공훈록(1)398	
교하면 교하리	林 明 愛	1886~1938	3·1운동	독자(5)555~557, 독운(2)196 독운(9)224, 공훈록(2)254, 577	82표
" "	林 載 豊		3·1운동 독립군활동	독자(3)719, 명치(2)773 공훈록(2)255, 공훈록(4) 429	
법원읍 금곡리	張 京 春		3·1운동	독운(3)521~523, 우독공 278	77표
광탄면 발랑리	鄭 甲 石	1894~	"	독자(5)557, 공훈록(2)266	
" "	鄭 奉 和	1892~	"	독자(5)557, 공훈록(2)268	
적성면 구읍리	鄭 用 大 (容 大)	1882~1944	의병운동	독자(3)505, 525, 794, 795 독자(別1)29, 34, 65, 82, 98, 108, 112, 163, 166, 1218, 매천496, 505, 516, 522 우독공 17, 공훈록(1)906, 양주군지1154	77국민

독립유공자		생존년대	활동별	증거사항	비고
주	소성명				
광탄면	발랑리 鄭天和	1879~	3·1운동	독자(5)557, 공훈록(2)272	
금촌읍	금촌리 丁泰鎭	1903~1952	문화운동	독운(8)501, 1002, 1011, 1012, 1015, 1016, 김승학(下)267 우독공 99, 공훈록(6)582	62국민
광탄면	발랑리 曹茂釗	1894~	의병운동	독자(5)557, 공훈록(2)281	
교하면	서패리 崔昌燮		"	우독공 210, 229, 양주군지 1172	77표
"	와동리 崔鴻柱	1891~1919	3·1운동	사실증명서(파주군교하면장) 독운(2)197, 우독공 287 공훈록(2)299, 608	77표
파평면	장자리 韓殷東		"	독운(2)193, 공훈록(2)304	
교하면	동패리 黃麟秀		의병활동	광복건국포상 자료 9집 1034	
적성면	마지리 朴長浩		광복군활동	조선독립운동(11) 한국독립운동사 공훈록	
교하면	문발리 閔泳達		독립운동	독립유공자(대한민국 제66460호)포상	86.12.16
금촌읍	금촌리 洪鍾萬		"	독립유공자훈장 수여	

파주군 독립유공 미포상자 일람표

독립유공자		연령	유공자료집	처형별	유족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금촌읍 검산리	柳 瑛	24	3·1운동 19인주동자	예비구속 3개월	금촌읍 검산리	류 연 수
파주읍 파주리	尹 弘 燮	25	"	징역 1년	문산읍 문산리	윤 창 노
광탄면 창만리	權 重 煥	30	"	예비구속 6개월	광탄면 신산리 215	권 영 복
" "	沈 宜 鳳	25	"	"	금촌읍 금촌리 295	심 상 국
" 마장리	李 宗 九	23	"	예비구속 3개월	파주읍 봉서리 산2	이 달 우
천현면 법원리	黃 裕 顯	60	"	망명(美) 12개월	서울 은평구 대조동 89-265	황 세 연
" "	黃 秉 周	27	"	"	"	"
광탄면 발랑리	李 鳳 植	18	"	징역 8개월	"	"
문산읍 문산리	朴 禹 鏞	50	"	예비구속 6개월	월릉면 영태리	박 명 근
" "	李 學 魯	48	"	"	" 문산리	유족불명
문산읍 사목리	黃 鶴 周	30	"	예비구속 3개월	문산읍 사목리	황 후 연
파주읍 파주리	李 根 永	25	"	"	파주읍 파주리	유족불명
" "	李 南 基	21	"	징역 1년	서울 마포구 공덕동 205	이 태 우
" "	金 定 中	26	"	징역 8개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 리 4동 1-100 1/5	김 선 경
파주읍 봉서리	白 冀 洙	45	"	예비구속 6개월	파주읍 파주리	유족불명
천현면 법원리	尹 斗 永	21	"	예비구속 1년	천현면 법원리	윤 경 수
금촌읍 금촌리	鄭 永 義	25	3·1운동 애국투사	광통상(입원)3년	서울	정 원 조
탄현면 법흥리	南 廷 採	27	"	징역 6개월	탄현면 법흥리	유족불명

독립유공자		연령	유공자료집	처형별	유족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교하면 교하리	金 東 哲	19	3.1운동 애국투사	징역 3년	광명시 광명동 158-1010	김 춘 환
" "	金 字 德	16	"	징역 1년	교하면 교하리	김 춘 환
" 당하리	吳 俊 相	21	"	총 살	교하면 당하리	유족불명
광탄면 신산리	安 東 煥	19	"	"	광탄면 신산리	"
" "	安 明 煥	20	"	"	"	"
광탄면 발랑리	鄭 時 和	18	"	"	광탄면 발랑리	"
" "	鄭 奉 和	28	"	징역 8개월	"	"
" "	鄭 天 和	31	"	"	"	"
탄현면 법흥리	黃 義 東	18	"	징역 6개월	탄현면 법흥리	"
천현면 가야리	姜 福 山	29	"	예비구속 9개월	천현면 동문리	강 근 수
파평면 장파리	韓 銀 東	30	"	징역 6개월	적성면 장파리	유족불명
" "	李 柱 宅	30	"	"	"	"
문산읍 문산리	鄭 弘 俊	33	의병운동	교수형		"
조리면 봉일천리	李 容 鉉	22	"	징역 15년		"
천현면 가야리	金 潤 鍾	43	"	징역 15년		"
" 삼방리	尹 致 大	35	"	징역 5년		"
" "	李 殷 贊	32	"	예비구속 5년		"
" "	尹 仁 淳	32	"	"		"
임진면 문산리	朴 勝 範	32	국가동원법위반	징역 9개월		
교하면 와동리	李 丁 順		"	징역 6개월		
" 교하리	鄭 允 石		"	징역 3년6개월		
적성면 식현리	鄭 道 鉉		보안법위반	징역 9개월		

민 영 달(閔泳達)

1859(철종 10)~1924.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서울 출생. 자는 공무(公武). 호는 우당(藕堂). 군수 관호(觀鎬)의 자.

1885년 증광문과 병과에 주부(主簿)로써 급제하였다. 1892년 경기도관찰사를 거쳐 형조판서·예조판서·좌찬성 등을 역임하였다. 1894년 호조판서로 있다가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의 내부대신이 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왕후가 시해되자 사직하였다. 명성왕후의 종형제로서 지혜가 있고 권략(權略)이 풍부하여 동족(同族) 중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당대의 정객인 이완용(李完用)과 이윤용(李允用)을 조종할 정도로 수완이 있었으며 이재(理財)의 재간도 뛰어났다.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대부분의 대신들이 청국에 구원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고 일본에 구원을 요청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910년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뒤 그에게 남작의 작위를 주려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1921년 동아일보사에 5천원을 출자하기도 하였다. 1986년 12월 16일 대한민국정부 제 66460호로 독립유공자로 지명되었다. 묘는 파주군 교하면 문발리에 있다.

「참고문헌」 《日省錄》《承政院日記》《文品案》《大韓季年史》《朝鮮貴族列傳》(大村友之丞, 朝鮮總督府印刷局, 1910)《朝鮮紳士寶鑑》

반 하 경(潘夏慶)

?~1910. 순국지사. 내시.

황제의 명을 전달하는 승전색(承傳色)의 소임을 맡은 바 있다. 1905년 일제가 매국대신을 앞세우고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자 분개하여 사임하였다. 사임후 파주군 교하면(交河面)에 칩거하고 있던중,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비분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순국의 길을 택해 일제에 항거하기로 결심하였다. 유서를 작성하고 큰 길가로 나아가 앞에 유서를 펼쳐놓고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고 자결하였다. 이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달려가자 이들에게 “궁내정부관원이 귀천은 다르다하지만 나도 임금의 은혜를 입고 지낸 것이 수십년간이었다. 지금 임금이 뜰 아래 내려서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따스한 방에서 편하게 죽을 것이냐”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순국하였다. 묘는 교하면 문발리에 있다.

정부에서는 충절을 기리어 1962년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駘馳隨筆》《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韓國獨立史》(金承學)《獨立運動史》7(國家報勳處)《獨立有功者功勳錄》1《韓國人名大事典》

정 태 진(丁泰鎭)

1903 ~ 1952. 한글학자, 파주(坡州) 출신.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문과(文科)를 졸업하고 1927년 미국 스타대학 철학과 수료하였다. 또 컬럼비아대학 대학원 수료하고 1931년 함흥의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永生女子高等普通學校)교사로 있다가 1941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큰사전 편찬위원 등을 지냈다.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2년간 복역(服役)하였다. 1952년 《큰사전》속간(續刊)을 위해 서울에서 편찬사업에 전력하다가 고향 파주에 가는 도중 교통사고로 별세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이 수여되었다. 저서로는 《고어사전 古語辭典》《고어독본 古語讀本》《국어학개론 國語學概論》 등이 있다. 묘는 금촌읍 금릉리에 있다.

「참고문헌」 《韓國人名大事典》

경 현 수(慶賢秀)

1861(철종 12)~1928. 독립운동가·학자. 본관은 청주(淸州). 파주군 적성면 관동(館洞) 출생. 자(字)는 희백(希伯). 호(號)는 오암(悟庵). 김순호(金順浩)의 자. 백부(伯父) 김원호(金元浩)에게 출사(出嗣). 김평묵(金平默)의 문하.

통훈대부 성균관박사겸 교수(通訓大夫成均館博士兼教授)를 역임하고 1905년 11월 18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국의 뜻 있는 유학자들로 구성된 13도 유약소(儒約所)에 가담하여 김동필(金東弼)·이봉학(李鳳學)·강원형(姜遠馨) 등과 함께 궁문앞에 나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지금 이 5조약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영영 망하게 하는 기틀입니다. 더구나 황상께서는 불가(不可)라 하고, 정부 주무의 참정대신(參政大臣)이 불가(不可)라 하고 국민이 모두 불가라 하는데, 가(可)자를 쓰는 대신을 어찌 폐하의 신하라 하고 정부 대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 대신 박제순(朴齊純)은 외교를 맡은 주무 대신으로서 압제에 의하여서라고는 하지만 머리를 숙이고 인장을 찍었으니 어찌 매국의 죄목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 여러 대신도 처음부터 저들의 앞잡이가 되어 오다가 오늘의 화를 조성하였고 반역의 행동이 결국은 가(可)자를 쓰는 자리에서 드러났으니 후안무치(厚顏無恥)도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열성조(列聖朝)와 황상폐하의 역신(逆臣)이오니 국법이 있는데 어찌 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만일 그대로 둔다면 3천리 강토가 다시 대한의 소유가 될 수 없사오니, 폐하는 장차 종묘사직을 어느 곳에 두시렵니까. 억만백성을 뉘 집으로 보내어 노예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아울러 역적 무리들의 머리를 베어 거리에 달아서 백성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각 국 공사관에 통고하여 조약을 무효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직접 공함(公函)을 각 국 공사관에 보내어서 조약의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벌이려고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용천(龍川)을 중심으로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던 전덕원(全德元)과 함께 활약하였다. 1908년 13도연합의병부대의 총대장인 허위(許鵞)의 부대에 중군하게 되었다. 그 해 2월 허위의 지시에 따라 청국혁명단(淸國革命團)에 군사 원조를 청하는 밀사로 파견되었다. 1919년 고종의 국상(國喪)을 당하여는 장남인 김우현(金禹顯)과 함께 상경하여 유림역사대(儒林力士隊)를 조직하고 청량리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장남이 종로경찰서에 연행되는 고초를 겪었으며, 1920년 3·1운동 1주년에는 《신조선 新朝鮮》주간인 이달(李達) 등과 함께 의거를 꾀하던 중 이 사실이 일본 경찰에 참지되어 경성검사국(京城檢査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공을 기리어 1977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후학들에 의해 포천 운담사(雲潭祠)에 배향(配享)되었으며, 1985년 공적비가 건립되었다.

「참고문헌」《大韓季年史》《동유록》《왕산 허위선생 거의사실대략》《淸州慶氏族譜》《獨立運動史》1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69) 《獨立運動史資料集》1, 2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0) 《獨立有功者功勳錄》1 (國家報勳處, 1986) 〈雲潭祠影堂配享發文〉〈愛國志士梧庵慶賢秀先生功績碑文〉

김 남 산(金南山)

1894~1919. 독립운동가. 파주군 천현면(泉峴面) 출신.

1919년 3·1운동때 3월 27일 파주군 광탄면(廣灘面) 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조리면 봉일천리(條里面 奉日川里)까지 진출하였는데, 그것은 이날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봉일천 장날이기 때문이었다. 장에 모인 많은 군중들은 시위대에 합류하여 독립만세를 높이 외쳤다. 이에 동지 심상각(沈相恪)과 함께 수백명 군중의 앞장에 서서 독립만세시위를 하였다. 그런데 이 때 출동한 일본 군경이 시위군중을 향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4,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순국하였다.

한편 시위대는 해산하지 않고 이날 밤 늦게까지 파주군 각면에서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계속하여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였다. 정부에서는 공을 기리어 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묘는 법원읍 갈곡리에 있다.

「참고문헌」《獨立運動史》2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2) 《獨立有功者功勳錄》2 (國家報勳處, 1986) 〈坡州郡泉峴面長確認書〉

노 동 식(魯東植)

1891~1919. 독립운동가.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新山里) 출생. 이명은 순산(舜山).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의 독립만세 시위가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거국적인 3·1운동이 전개되었다. 파주지역에서도 3월 10일 와석면(瓦石面) 교하리(交河里)에서 임명애(林明愛) 등 1백여 명의 보통학교 학생들이 교정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벌이면서 이 지역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3월 25일에는 구세군(求世軍)인 염규호(廉圭浩)가 김수덕(金守德)·김선명(金善明)·임명애·김창실(金昌實) 등과 시위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3월 26일 와석면 일대에서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날 시위에는 약 7백여 명의 시위 군중이 참여하여 면사무소로 물러가 유리창을 깨고 면서기들에게도 휴무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시위대는 다시 현병 주재소로 행진하던 중,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파주 분전소(分遣所)의 현병과 일본 경찰의 발포에 의해 최홍주(崔鴻柱)가 현장에서 순국하고 시위군중은 해산되었다.

이와같이 독립만세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광탄면에서는 심상각(沈相恪)·김웅권(金雄權) 등이 군내 월농(月籠)·교하(交河)·아동(衙洞)·조리(條理)면 등지의 장날을 이용하여 군전체가 봉기할 것을 모의하고 3월 27일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날 2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광탄면 사무소 앞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대는 조리면 봉일천리(奉日川里) 장터로 행진하여 그 곳에 있던 1천여 군중과 합세하여 봉일천 현병 주재소를 습격하고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일본 경찰 및 현병은 전날에 이어 다시 발포를 자행하면서 시위를 저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3천여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던 중 일본 경찰이 발포한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공을 기리어 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묘는 광탄면 신산리에 있다.

「참고문헌」〈廣灘面長發行事實確認書〉《獨立運動史》2〈國家報勳處〉《우리고장 獨立功勳史》〈京畿道教育委員會〉《獨立有功者功勳錄》2《現代史資料》朝鮮1

박 영 준(朴英俊)

1915~? 독립운동가. 본관은 반남(潘南). 파주(坡州) 출신. 독립운동가 찬익(贊翊)의 자.

1935년 중국 절강성(浙江省) 가흥현(嘉興縣) 수주중학(秀州中學)을 졸업하고 부친을 따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특히 청년단을 조직하여 주로 선전공작 활동을 전개하였고 임시정부와 함께 장사(長沙)·유천(柳川)·강서(江西)·귀주(貴州)·사천(四川) 등지에서 공작활동을 하였다. 1938년 한국독립당과 한국국민당이 통합되고 미국에 있는 대한독립단·동지회·국민회·부인애국단·단합회 등을 통합하여 임시정부의 외곽 단체로서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陳線)이 조직되자 여기에 가담하였다. 이에 한국광

복진선 청년공작대에 소속되어 항일연극과 강연, 합창 그리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반일사상의 고취와 함께 초모공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공작을 통해 일본군에 징병되어온 한국병사들이 일본군을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가담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1939년 11월 중경(重慶)에서 임시정부에 인재양성계획에 따라 중국중앙군관학교 특별훈련반에 입교하여 1941년 12월 제 17기로 졸업하였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도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광복군 제3지대에 배속되어 지대장 김학규(金學圭)의 휘하에서 간부로 활동하였다. 이곳에서 일본군에 강제징집되어 참전한 한국 사병들을 초모하기 위해 진력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일군에 소속되어 있던 다수의 한국인 장병을 광복군으로 탈출시켰다. 또한 이들을 훈련시켜 중경의 총사령부로 보내어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에 배치하였다. 1942년 4월부터는 상위(上尉) 계급을 달고 중경에 있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서무과에 배속되어 근무하였다. 1943년 1월에는 임정 한인청년회 문화부장직을 맡았다가 이해 8월에 다시 광복군 총사령부 서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944년 6월부터는 이시영(李始榮) 재무장(財務長) 밑에서 임정 재무부 이재과장(理財課長)으로 근무하였다. 1945년 3월부터는 다시 한국광복군 제 3지대 제 1구대장 겸 제 3지대 훈련총대장직에 임명되어 군사훈련과 정보수집·파괴공작 등의 교육훈련 활동에 진력하였다.

1945년 5월에는 미군과 광복군 합동으로 국내상륙작전의 수령되어 안휘성(安徽省) 입황현(立煌縣)에서 한미합작 훈련반을 설치하고 정보·파괴·무전 등 각종 특수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때 김학규 주임·미군 드럼먼(Drumman) 소령·웜스(Weems) 대위 등과 함께 이 부대의 훈련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국내진공작전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8월 30일 광복군 총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개봉지구 군사특파단장에 임명되어 일본군에 있던 한인 사병을 수용하여 광복군 잠편지대를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시키는 한편, 한국 교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을 쏟았다.

교포들에 대한 국내철수작전이 끝나자 임시정부의 명령으로 임정주화대표단 동북판사처(東北辦事處) 외무주임에 임명되어 자위대를 조직하는 등 2백만 재만주교포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였다. 심양(瀋陽)에서 4개 대대를 조직, 편성하여 대공항쟁을 기도하던 중 1948년 김구(金九)의 남북협상설이 전하여지자 귀국하였다. 귀국후 한국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장군으로 예편하였다. 정부에서는 공적을 인정하여 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韓國獨立史》(金承學) 《韓國獨立運動史》5 (國史編纂委員會)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13 《臨時政府義定院文書》(國會圖書館) 《獨立運動史》4·6(國家報勳處) 《우리고

박 찬 익(朴贊翊)

1884~1949. 독립운동가. 본관은 반남(潘南).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 출생. 자는 정일(精一). 호는 남파(南坡).

1904년 관립상공학교(官立商工學校)에 입학하여 항일운동을 모의하다가 퇴학당했다. 1908년 4월 다시 관립공업전습소(官立工業專習所)에 입학하여 2년후 졸업하였다. 1906년 안창호(安昌浩)·이시영(李始榮)·이동녕(李東寧)·신채호(申采浩) 등이 조직한 신민회에 가입하여 민족운동을 벌였다. 1910년 국치이후 박승익(朴勝益)·김원근(金遠根) 등과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이해 겨울 만주 용정(龍井)으로 망명하였다. 망명 후 북간도에서 이상설(李相僑)·백순(白純) 등의 지도를 받는 한편, 대종교 도사교(都司敎) 나철(羅喆)의 권유로 대종교에 입교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선양을 목적으로 1912년에는 화룡현(和龍縣)에 한인학교를 세우고 애국정신과 자립사상을 고취하였다. 또한 이 해 7월에는 신규식(申圭植)·신채호·이광(李光) 등과 박은식(朴殷植)을 총재로 동제사(同濟社)를 조직, 독립운동의 중심기구로 발전시켰다. 1918년 11월에는 길림(吉林)에서 이동녕·김동삼(金東三)·김교헌(金敎獻) 등 39인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신규식 등과 함께 손문(孫文) 등 중국측 지도급 인사와 친밀하게 교유하여 이후 중국의 군관학교에 한국 청년들을 입교시켜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1919년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힘입어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자 이 해 4월 10일 임시의정원 의원에 피선되었다. 당시 서일(徐一)이 현천묵(玄天默)·김좌진(金佐鎭) 등과 함께 대한군정서(大韓軍政署)를 조직하고 만주에서의 군정부로서 교민 자치와 무장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대한군정서의 외교처장을 맡으면서 임정과 군정서 사이에서 외교를 전개하여 이 해 12월 군정서를 임정 산하로 편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921년 7월 7일에는 임시정부 외무국 국장 겸 차장대리로 주로 대중외교에 치중하였다. 8월에는 임시정부 경제후원회를 조직하였고 태평양회의의 외교후원회 창립총회에서 간사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태평양회의·만국교육대회·세계신문대표자회의에서 한국독립을 선전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해 손문이 광둥(廣東)에 중국호법정부를 수립하자 11월 1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파대사 신규식의 부사(副使)로서 광둥에 가서 임정과 호법정부 양자가 상호승인을 교환하는 외교활동을 하였다. 곧 이어서 임시정부 주광대표(駐廣代表)로 그리고 1922년 2월 7일에는 특파교섭원에 임명되어 대중국외교를 전담하였다. 이 해 9월 신규식이 서거하자 동제사 이사가장이 되어 한·중합작 항일운동에 전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중국정부에 한국독립운동의 실체를 크게 선전하고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통으로서 1932년 5월 김구(金九)와 장개석(蔣介石) 사이에 한·중 영수회담을 성사시키고 이를 통해 만주사변 이후의 한·중합작 항일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중·일전쟁시인 1939년에는 다시 임시의정원 의원에 피선되었고 1940년 10

월 중경 임시정부 국무위원에 피선되었다. 그후 법무부장을 지냈고 1944년 2월 신헌법에 의하여 국무위원에 당선되었고 고문을 겸하였다. 해방 후에도 임시정부 주중대표단장으로 남아 있다가 1948년에 귀국하였으나 그 이듬해인 1949년 서울에서 병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공을 기리어 1963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추서하였다.

「참고문헌」《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韓國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1972)《獨立運動史》(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박 원 선(朴元善)

1878~1919. 독립운동가.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新山里) 출생.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의 독립만세시위가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거국적인 3·1운동이 전개되었다. 파주 지역에서도 3월 10일 와석면 교하리(交河里)에서 임명애(林明愛) 등 1백여명의 보통학교 학생들이 교정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면서 이 지역 3·1만세운동을 출발시켰다. 또 3월 25일에는 구세군(救世軍)인 염규호(廉圭浩)가 김수덕(金守德)·김선명(金善明)·임명애·김창실(金昌實) 등과 시위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3월 26일 와석면 일대에서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 날 시위에는 약 7백여명의 시위군중이 참여하여 면사무소로 물러가 유리창을 깨고 면서기들에게도 휴무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시위대는 다시 현병주재소로 행진하던 중,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중이던 파주 분견소(分遣所)의 현병과 일본 경찰의 발포에 의해 최홍주(崔鴻柱)가 현장에서 순국함으로써 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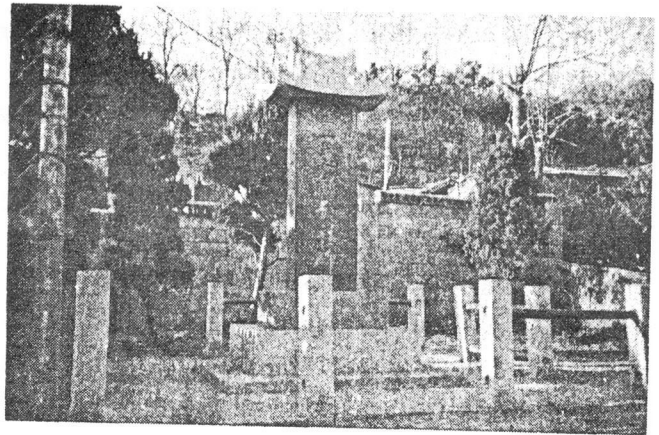
이와같이 독립만세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광탄면에서는 심상각(沈相恪)·김웅권(金雄權) 등이 군내 월룡(月龍)·교하(交河)·아동(衙洞)·조리(條里)면 등지의 장날을 이용하여 군전체가 봉기할 것을 모의하고 3월 27일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2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광탄면사무소 앞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대는 장날이던 조리면 봉일천리(奉日川里) 장터로 행진하여 그곳에 있던 1천여 군중과 합세하여 봉일천 현병주재소를 습격하고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일본경찰 및 현병은 전날에 이어 다시 발포를 자행하면서 시위를 저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일본 경찰이 발포한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 공을 기리어 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광탄면장발행사실확인서〉《獨立運動史》2(國家報勳處)《우리고장 獨立運動功勳史》《獨立有功者功勳錄》2(國家報勳處)《현대사자료》조선 1

심 상 각(沈相恪)

1888~1954. 독립운동가. 본관은 청송(靑松). 김포(金浦) 출생. 파주(坡州) 성장. 호는 우산(又山). 현감 정택(定澤)의 자.

1919년 3·1운동 당시 3월 10일 파주지역에서도 임명애(林明愛) 등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3월 25일에도 구세군(救世軍) 염규호(廉圭浩)가 김수덕(金守德)·김선명(金善明)·임명애·김창실(金昌實) 등과 더불어



파주 3·1운동발상비

어 시위를 계획하여 3월 26일 와석면 일대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만세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김웅권(金雄權) 등과 함께 군내 월룡·교하 아동·조리면 등지의 시일을 이용하여 군 전체가 봉기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3월 27일 2천명의 시위군중이 광탄면 사무소 앞에 집결하여 독립 만세를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조리면 봉일천리(奉日川里) 장터로 행진하여 그곳에 있던 1천여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헌병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시위를 주동한 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상해농업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신교육을 받으면서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약 10년간의 임시정부 활동을 마감하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신간회(新幹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파주군 광탄면에 광탄보통학교(廣灘普通學校)를 설립하고 그 교장에 취임하여 후진 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전념하였다. 정부에서는 1977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묘는 광탄면 신산리에 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 2 《국가보훈처》 《명치백년사총서》 2 (김정명)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국회도서관) 〈임증서〉 (박영준, 민충식) 《파주군사》 《우리고장 독립운동공훈사》 (경기도교육위원회) 《한국인명대사전》 《독립유공자공훈록》 2·5

염 규 호(廉圭浩)

1881(고종 18)~1941. 독립운동가. 본관은 파주(坡州). 파주군 와석면 교하리(交河里) 출생.

3·1운동이 일어나자 김수덕(金守德)·김선명(金善明)·임명애(林明愛) 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3월 25일 모의하여 거사일을 같은 달 28일로 결정했다. 그리고 군중의 원활한 동원을 위한 취지문을 발행했는데, 이때 격문을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김선명이 빌려온 등사판으로 60여장의 격문을 인쇄하여 김창실(金昌實)이 당하리(堂下里)와 구당리(九堂里)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그같은 사실을 널리 전했다. 3월 26일 700여명의 군중이 삼시간에 모이자 선두에서 시위군중을 인솔하여 읍내로 나아갔다. 읍내를 한번 시위한 후 군중이 더욱 많아 시기가 충전하자 면사무소 앞마당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파괴했다. 그리고 면서기들을 군중 앞에 세우고 성스러운 날을 위해 휴무할 것을 강요하였다. 주재소를 향해 시위군중을 이끌고 행진하던 중 미리 대비하고 있던 경찰의 발포로 최홍주(崔鴻柱)가 현장에서 순국하고, 군중들은 강제로 해산되었으며 김수덕·김선명·임명애·김창실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같은해 6월 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출판법 위반혐의로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결국 고등법원에서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석방 후 농촌의 피폐한 실정을 개선코자 노력하다가 1941년 3월 9일 고향에서 사망했다. 묘는 와석면 교하리에 있다. 1983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獨立運動史資料集》5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1983) 2

유 화 진(俞華鎭)

1898~? 독립운동가. 파주군 탄현면 법흥리 출생.

고향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서울에 올라와 근대교육에 접하게 되었다. 1917년 선린상업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식민지교육에 상당한 회의로 좌절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듬해 동경유학생들이 동경 중심가의 기독교회관에 모여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조선의 독립을 염원한 '2·8 독립선언'이 거행되고 일부는 국내로 파견되어 국내에서 대규모의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동료 유극로(兪極老)·남정채(南廷彩)·윤운용(尹允用) 등과 더불어 모의하고 동교생들을 거사일에 대대적으로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3월 1일을 기하여 전국적인 독립운동의 전개가 확정되었다. 이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파고다공원에 집결하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시위군중과 함께 가두행진을 감행하였다. 동교생들과 함께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종로경찰서를 향해 행진하였다. 시위대가 경찰서 앞에 이르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위에 들어갔다. 당황한 일본의 군경은 총칼을 휘두르며 군중을 해산시키고 이 틈을 이용하여 체포하기 시작했다.

동료들과 함께 연좌농성을 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1919년 11월 16일 경성북심법원에서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참고문헌」《獨立運動史》2·9(國家報勳處)《獨立運動史資料集》5(國家報勳處)《韓民族獨立運動史》(文一民)《獨立有功者功勳錄》2(國家報勳處, 1983)

유 극 로(兪極老)

1900~? 독립운동가. 파주군 탄현면 법흥리 출생.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고 이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근대적인 교육기관에서 신학문을 배우고자 했다. 마침 같은 마을의 유화진(俞華鎭)을 만나 장차 사업가가 되어 조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들기로 다짐했다. 이리하여 1917년 선린상업(善隣商業)학교에 입학하였다. 입학후 학생회에 가입하여 일제의 식민지교육을 비난하였으며 지하조직에 가담했다. 한편 2·8독립선언에 자극을 받아 국내에서도 종교계 인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계획되고 있었다. 남정채(南廷彩)·유화진·윤운용(尹允用)·이승영(李勝英) 등과 모여 이같은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거사일에 전교생을 동원하기로 했다. 3월 1일 전교생이 교정에 모이자 모두 인솔하여 파고다공원으로 향하고자 하였다. 이때 학교에서 폭력사태를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자 동료들과 더불어 학교담을 넘어 파고다공원에 갔다.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학생을 선두로 시위군중은 시가지행진을 감행하였다. 대형태극기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이끌며 종로를 지나 경찰서 부근에 이르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경찰서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일본

경찰은 총칼을 휘두르며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에 선두에서 시위대를 인도하던중 체포되었다.

1919년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7개월형이 선고되었으나 항고하여 11월 6일 복심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석방후에는 일제의 차별교육에 대항하여 각종 동맹휴학을 주동하였으며 다른 학교와 연합한 지하조직을 결성하는 등 1920년대 학생운동에 기여했다.

「참고문헌」《獨立運動史》2·9（國家報勳處）《獨立運動史資料集》5·13（國家報勳處）《三・一運動秘史》（李柄憲）《獨立有功者功勳錄》2（國家報勳處，1986）

이 문 섭(李文燮)

1874(고종 11)~1939. 독립운동가. 본관은 양성(陽城). 파주군 천현면 대릉리 출생. 호는 준상(俊相). 병원(秉元)의 자. 심상각(沈相恪)의 문인.

1919년 3·1운동이 서울을 시발로 지방에 파급되자 파주에서도 대대적인 만세시위운동이 계획되었다. 주동자인 심상각은 광탄면 발랑리(發朗里)에서 이문섭·권중환(權重煥)·박우용(朴禹鏞)·김웅권(金雄權)·염규호(廉圭鎬)·윤영두(尹永斗)·황학주(黃鶴周) 등 19명과 회합하여 장날인 3월 28일로 거사일을 결정했다. 이들은 각자 마을로 돌아가 태극기를 제작하고 동원준비를 비밀리에 진행시켰다. 3월 27일 조무쇠(曹茂釧)·이인옥(李仁玉) 등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다음날 책임자의 인솔하에 주민들이 동원되니 2,000여명에 이르는 대군중이었다. 심상각은 독립만세운동의 정당성과 앞으로의 행동에 있어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면사무소를 출발하여 장터를 행진하자 이에 가담하는 자가 많아 시위군중은 5,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시위대의 선두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조리면 봉일천리(奉日川里)로 행진하여 주재소를 포위하고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군경은 무차별하게 발포하여 강복산(姜福山)·김남산(金南山)·박원선(朴元善) 등 10여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6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때 체포되어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묘는 파주군 천현면 대릉리에 있으며 기념비는 광탄면 발랑리에 있다.

「참고문헌」《坡州愛國志士獨立運動開爭史誌》（坡州3·1運動記念碑建立委員會）

이 영 진(李泳震)

1867~1937. 독립운동가. 본관은 양성(陽城). 파주군 천현면 출생. 자는 공윤(孔允). 준겸(俊謙)의 자.

거국적인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광탄면 신산리의 우산 심상각(沈相恪)의 주도하에 백익수(白翼洙)·이학로(李學魯) 등과 함께 각 면의 대표로 19인의 결사를 조직하여 그 본부를 광탄면 발랑리(發朗里)에 두고 군민의 동원 시기·운동의 시행 방법을 결정하여 각 면에 전달하였다. 공릉(恭陵) 시장의 장날인 3월 27·28·29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파주군민은 물론 고양군민의 일부까지 동원하여 참가한 시위대는 5천여 명에 달했다. 시위대가 봉일천 주재소를 에워싸자 당황한 일본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10명의 사상자와 70여명의 부상자를 내고 시위 운동을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으로 일경이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로 얻은 신병으로 고생하다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1978년 3월 1일 건립된 <파주 3·1운동 기념문>에 파주의 3·1운동을 주도한 19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공적이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陽城李氏大同譜》《坡州愛國志士獨立運動鬭爭史誌》(1978)

정 용 대(鄭用大)

1882~1910. 의병장. 본관은 광주(光州). 파주(坡州) 출신. 호는 의암(毅庵). 의병 인태(寅泰)의 손. 의병 두환(斗煥)의 자.

할아버지 인태는 1895년 1월 15일 의병으로 왜적과 싸우다가 순국하였고, 같은해 9월 19일 부친 두환도 일본이 민비를 시해한 을미사변에 분기하여 동지를 규합하여 일본군과 싸우다가 순국하였다. 의병집안의 장남으로 어린시절부터 조부와 선친의 우국 충정 정신을 이어받아 기백과 인품이 남달랐다. 18세 때에는 적성읍(積城邑) 명륜당에서 수학하며 유림과 교유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에 분기하여 경기지방을 순회하면서 의병을 수백명 모집하고 적성창의부(積城倡義府) 좌군장(左軍將)이 되어 동료 의병장 이은찬(李殷贊)·윤인순(尹仁淳)·강기동(姜基東)·연기우(延起羽) 등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경기·강원·황해 각지의 우국지사를 규합하여 적성·양주(楊州)·풍덕(豐德)·교하(交河)·통진(通津) 등지에서 일본 관헌과 투쟁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일본군과 투쟁하는 한편, <의암고 毅庵稿>를 작성하여 이등박문(伊藤博文)에게 공함서(公函書)를 보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통박하였고, 항일투쟁에 앞장 설 의병의 모집과 협조를 부탁하는 <서중문 誓衆文>을 배포하는 등 문장을 통한 항일 운동도 아울러 전개하였다. 1907년 1월 17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있었던 연평도·견산도 전투에서 이근수(李根守) 의병장의 전사와 3월 17일 양주전투에서 윤인순 의병장의 전사에 따라, 1908년 이은찬 의병장이 의병운동의 확대를 위해 상경하던 길에 용산역에서 일경에 체포되자, 경기도 의병대장이 되어 의병을 총 지휘하게 되었다. 다소

전세가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적과의 적극적인 교전과 동시에 군자금 조달에도 신경을 써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항일투쟁을 모색하였다.

일제의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군자금 조달을 위한 활동상은 다음과 같다. 1908년 4월 23일 부하 이종근(李宗根) 외 18명으로 하여금 통진군 대패면(大佩面)의 심진사(沈進士) 집에 가서 동장들을 일제히 불러 총을 구입할 비용을 염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5일 후에 대금 1만 5천냥을 거두어 거사 자금에 보태었다. 그리고 4월 24일 대패면에 거주하는 부위 김순좌(金順佐)에게서 군도 1자루, 양룡면 한(韓) 모에게서 군도 2자루, 교하군 민(閔)판서에게서 양총 7자루·탄환 9백발 그리고 고을 사람에게서 군도 4자루를 거두어 전력을 보완하였으며, 고을 사람 조운원(趙云遠) 등과 미리 기맥을 통하여 현병·순사의 동정을 탐지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부하 신관수(申寬秀)는 4월 12일 통진군의 김화안(金和安)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 10원을 조달하였고, 5월 20일경 교하군 민영도(閔永道)의 집에 들어가 총기 2자루와 탄환 1백 발을 조달하였다. 6월 9일경 강화군 고도(高島) 해안에서 군자금 조달을 위한 활약을 계속했으며, 연안읍내에 거주하는 최성섭(崔聖燮) 등에게 현미 1백50부대를 받아 군량미로 썼다. 그리고 부하 백영현을 시켜 1908년 12월 20일경 양주군 강동(薑洞)을 거점으로 하여 송범석(宋範錫) 집에 가서 군자금 6천원을, 그리고 이계운(李季雲)의 집에서 5천냥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1909년 6월 초에 동지 30~40명과 함께 변유삼(邊留三)에게 2차례에 걸쳐 3천냥을 거두는 등 군자금 조달에 활약이 매우 컸다.

1909년 6월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에서 일본 관헌과 교전 중 체포되었으며 동년 10월 28일 경성지방재판소 제1심에서 내란죄로 교수형을 언도받았다. 1910년 1월 12일 고등법원형사부 제2심에서 역시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며 동년 1월 27일 경성공소원 제3심에서 교수형이 확정되어 동년 12월 16일 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법정에서 ‘비굴하게 생을 도모코저 함은 흥황복조(興皇復朝)에 손상인 바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니므로 순절한 것을 결심했다. 대한의 국권회복을 위하여 싸우다 죽는다. 일제는 내정에 간섭치 말라’고 하여 일인 법관도 인격과 우국충정에 감탄하였다 한다. 1977년 12월 13일에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明治百年史叢書》 1 (金正明, 原書房, 1967) 《梅泉野錄》 (國史編纂委員會, 1971) 《獨立運動史》 1 《獨立運動史資料集》 3 《우리고장 獨立運動功勳史》 (京畿道敎育委員會, 1978) 《내고장 전통가꾸기》 (楊州郡, 1982) 《大韓民國獨立運動功勳史》 (金厚卿, 光復出版社, 1983) 《獨立有功者功勳錄》 1 (國家報勳處, 1986) 《楊州郡誌》

* 일정시대 독립운동가(1884~1904)

1. 독립하세 독립하세 우리 나라 독립하세
우리 청춘 소년 어서 독립하세
의회도 고만두고 자립하여 보세
관작도 고만두고 사계도 고만하세
2. 이 나라 우리 나라 남의 나라 아닐세
이 인민 우리 인민 남의 인민 아닐세
이 강산 우리 강산 남의 강산 아닐세
당당 독립 우리 대한 세계 일등되어 보세

후렴 : 우리 청춘 소년 어서 독립하세
독립이로다 독립이로다 우리 대한은 독립이로다.

한국독립협회, 대한협동회, 신민회, 만국공동회
(安昌浩, 李東輝, 申朱浩, 李東寧, 李相嵩, 李商在, 李儁)

한민족독립운동자 명단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죄 명	형 기 간	비 고
閔 丙 台	임진면 문산리 122	1918. 8.25	치 안 유 지 범	·	
朴 勝 範	임진면 문산리 57	1889. 8.30	국가총동원법위반	9개월	
朴 富 山	"	1910.11. 5	"	·	
鄭 宗 奭	아동면 금촌리 274	1911. 7.27	치안유지법 위반	·	
李 丁 順	교하면 와동리 220	1900. 7.13	국가총동원법위반	6개월	
鄭 允 芑	교하면 교하리	1907. 4.14	"	3년6개월	
裴 三 奉	조리면 죽원리 313	1916. 2. 6	"	·	
鄭 奉 和	광탄면 발랑리 360	1892.10.12	보 안 법 위 반	7개월	
黃 祐 顯	천현면 법원리 325	1883.12. 9	"	12개월	
鄭 道 鉉	적성면 식현리 113	1887.10.27	"	9개월	

○ 대한민국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찬발행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② p156~p280, 1992.

姓名		張		657		1951		1951		1951		1951		1951	
年齡		20		1951		1951		1951		1951		1951		1951	
籍貫		廣東		香港		香港		香港		香港		香港		香港	
職業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歷		中學		中學		中學		中學		中學		中學		中學	
現任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其他		無		無		無		無		無		無		無	

姓名		張		657		1951		1951		1951		1951		1951	
年齡		20		1951		1951		1951		1951		1951		1951	
籍貫		廣東		香港		香港		香港		香港		香港		香港	
職業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歷		中學		中學		中學		中學		中學		中學		中學	
現任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其他		無		無		無		無		無		無		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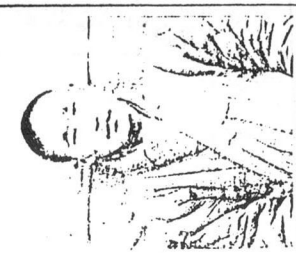


昭和11年5月18日刑部省報告。於7月1日（一）第30800號

④p.247

姓名		張		657		1951		1951		1951		1951		1951	
年齡		20		1951		1951		1951		1951		1951		1951	
籍貫		廣東		香港		香港		香港		香港		香港		香港	
職業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歷		中學		中學		中學		中學		中學		中學		中學	
現任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其他		無		無		無		無		無		無		無	

姓名		張		657		1951		1951		1951		1951		1951	
年齡		20		1951		1951		1951		1951		1951		1951	
籍貫		廣東		香港		香港		香港		香港		香港		香港	
職業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歷		中學		中學		中學		中學		中學		中學		中學	
現任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其他		無		無		無		無		無		無		無	



⑦p.434

거룩한 의병대장 박장호(朴長浩)선생의 일

관하 적성면 마지리 39번지 밀성군 23세손 화남 박장호(華南朴長浩)선생은 철종16년(1850) 6월 20일 평남 정주에서 출생하시어 화서이항로(華西李恒老)문인으로서 양평군 서종면 벽계리 화서선생님택에서 동문김영록(金永祿)과 같이 있으면서 고종13년(1876)일제가 침입 병자수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유인석, 홍재학, 유지일등과 일제 수호조약이 부당함을 지적 상소하였으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니 홍천에서 동지들을 규합 관동 의병장으로 항일 투쟁을 맹렬히 전개 1910년 8월 22일 일한합방의 경술국치후 일본군대가 대량 증강함에 있어 항쟁의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의병부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 유하현 삼원보(滿洲 柳河縣三源堡)에서 1919년 3월 5일 대한독립단을 결성 도총제(都摠裁)에 추대 청년들을 규합 10여만

명의 독립군을 편성 각지에 지단을 설치하는 한편 3·1운동을 위시 항일투쟁을 맹활약 하다가 1922년 4월 2일 일제의 앞잡이로 있는 김헌(金憲)에게 암살을 당하니 중국철영현 백기새촌 양방 하남산연미형건좌(中國鐵嶺縣白基塞村 昂邦河南山燕尾形乾坐)에 안장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후 이 소식을 들은 아들 박필보(朴弼補)씨는 아버지의 거룩한 일을 추모하면서 38선이 가로막혀 묘소 참배 조차 못한다는 슬픔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니 그의 손자 박정훈(孫 朴正勳)은 마지리에 살면서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날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2년 3월 1일 윤보선대통령으로부터 건국공로훈장 증서를 수여하게 되었다.

※ 조선독립운동사(11)와 무장독립운동비사와 한국독립운동사 등의 등재됨 (朴正勳 958~4123)

密城君 二十三世孫 華南公(長活)影幀

韓末에 開化政策을 反對하여 毅菴 柳麟錫 龍溪 柳基一 勵志 洪在鶴 等과 數次上疏하여 日本帝國 侵犯을 糾彈하시고 乙巳五條約이 強壓 締結되자 洪川에서 關東義兵將으로서 鬭爭 庚戌國恥를 當하여 奪主權하니 義兵部隊를 統率하여 滿洲로 移動 己千 李鎮龍 圓石 趙孟善 溫堂 白三奎 等の 義兵將과 抗戰 己未에 滿洲 柳河縣 三源堡에서 各 義兵團體 代表를 召集하여 大規模 大韓獨立團을 結成 都總裁에 推戴되시어 抗日運動을 指揮하고 靑年들을 糾合하여 獨立軍을 編成하는 한편 翌 國內에 組織을 擴大하여 支團을 編成 抗日運動에 從事하시다 一九二二年 日帝의 앞잡이 金憲에게 暗殺當하니 愛國志士의 奪淚를 뿌리게 하다.

一九六二年 建國功勞勳章 單章이 追敍되다.



華南公先生の 건국공로훈장



密城君 二十三世孫 華南公(長浩) 影幀

愛國志士 悟庵 慶賢秀先生 功績碑文

나라의 主權이 外勢의 侵略으로 위태로울때 나라 있음만을 알고 집안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民族이 있음만을 알고 내몸이 있음을 알지 못한채 身命과 家産을 바쳐 國權을 지키려다 痛恨의 生涯를 마치신 愛國志士가 여기 누워 계시나 바로 悟庵 慶賢秀선생이시다.

公의 寬鄉은 淸州로 始祖는 高麗朝 平章事 진(珍)이요 淸原府院君 復興은 21代祖가 되시고 副提學 日進은 12代祖가 되시며 敦寧府 都正 銑은 祖父가 되시니 1861年 1月 28日 坡州郡 積城面 館洞에서 順浩公의 長子로 出生하시어 後에 伯父 元浩公에게 出嗣하시다.

일찌기 아우 文秀와 함께 重庵 金平默선생에게 受學하여 孔孟의 道와 程朱의 法을 익히고 成均館 教授에 除授되어서는 이나라 棟梁 養成에 心血을 기울이시다.

乙未年 閔妃 弑害事件이 일어나자 憤怒를 참을 길 없어 아우 文秀(成均館博士) 洪在龜 柳基一 柳應斗 등과 鐵原地方에서 義兵을 일으켰다가 逮捕되어 獄苦를 치르던中 高宗의 特赦로 석방되었으나 나라의 運命이 時時刻刻으로 위태로와 지매 原州義兵陣의 李麟榮등과 起兵하는 한편 高宗 皇帝의 詔書를 받들고 中國 革命黨에 軍事援助 交涉特使로 密派되어 活躍하고 歸國하여서는 全局儒約所의 慶文秀 柳麟錫 全德元 등과 宮門밖에서 乙巳五條約의 無效를 主張하는 上疏를 올리는 한편 日本의 奸計를 폭로하는 檄文을 各國公館에 祕密히 보내다가 발각되어 재차 拘禁의 몸이 되시다. 이어 七條約이 체결되고 軍隊가 解散되자 成均館 教授職을 사퇴하시고 鄉里로 돌아와 旺山 許薦 金溱默등과 손잡고 積城 朔寧 安峽 兎山등지에서 日軍과 싸우는 한편 關東地方에 散在해 있던 各 義兵陣을 統合하여 聯合義兵隊를 組織하고 世傳되던 家産을 軍資金으로 快擲하였다.

己未年 高宗의 國喪을 當하여는 長子 愚顯과 上京하여 儒林力士隊를 組織하고 淸涼里에서 萬歲示威中 愚顯이 鍾路警務署에 連行되었다. 이듬해 三·一運動 一週

年을 맞이하여서는 「新朝鮮」主幹인 李達을 비롯하여 金榮萬 白義洙(初月) 등과 義學 謀議中 日警에게 탐지되어 京城檢査局에 檢舉 送致되었다.

1920年 8月에는 美國議會 極東視察團이 來訪하자 日本의 非人道的 行爲를 糾彈하는 「申明書」를 手交하고 國權恢復에 대한 國際的 支援을 要請하는 한편 1922年 8月에는 日本 代議士 荒川五郎 一行의 民情視察團을 맞아 尹吉炳 田文申 肯善同志들과 더불어 恭洞旅館(현 조선호텔)에서 만나 大韓의 自主獨立 必要性和 日本의 信義 背反을 痛駁하였다.

半平生을 오직 救國一念으로 東奔西走하시던 公께서 드디어 1928年(戊辰) 10月 9日 限서린 臨終을 告하시니 享年 68이시다.

後學들이 抱川雲潭祠에 尤庵과 重庵 그리고 悟庵선생을 함께 配享하는 發文에 「그 글은 春秋의 綱目이요 그 法은 禮樂과 刑政이라」고 적어 公의 學德과 人品을 칭송하였다.

公이 가신지 半世紀만인 1977年 公의 救國功績이 公認되어 大統領表彰이 追敘됨에 報勳處의 後援과 後孫 및 後學들이 한조각 돌을 다듬고 그 功績을 새기어 公께서 日軍과 싸우시던 저 푸른 臨津江이 바라보이는 이곳에 세우니 公의 끝은 忠節과 崇高한 救國精神은 江山과 더불어 永遠히 記憶되리라.

1985年 10月 日

서울大學校師範大學教授 文學博士 李應百 짓고
建立委員長 한국일보사 論說顧問 尹宗鉉 세움

※ 1977年 12月 13日 獨立有功者 大統領表彰 追敘 第4516號

일제침략의 근원과 식민지 정책의 패망

우리나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국난을 겪은 후에도 사색당쟁이 계속되면서 안동김씨 세도정치로 인하여 정치가 문란하게 되니 급기야 동학난이 일어나고 고종이 즉위 대원군의 섭정으로 대 개혁을 단행 서원 철폐령으로 47개 서원만을 유지하였으며 천주교를 탄압 병인양요로 불군(佛軍)을 격퇴시키었다.

고정 8년(1869) 제너럴쉬어 맹호사건을 계기로 미국 함대가 강화도로 침입하고 물러갔으며 고종 10년(1871)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로 대원군이 물러나 친정이 실시되자 민비가 정치에 간여 일본의 운양호사건이 일어나 고종 13년(1876) 한일수호조약이 체결되니 고종 19년(1882) 한노, 한영, 한미, 한독 등과 통상을 연다라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세력 팽창에 원인이 되니 임오군란이 일어났으며 청일(淸日)의 세력다툼 끝에 제물포조약이 체결 국내에 개화파(開化派)가 대두되어 고종 31년(1894) 갑신정변을 초래 청일전쟁이 발발 만주지역을 점령한 후 고종 32년(1895) 대한제국을 선포 김홍집 총무대신으로 내각을 편성(농, 상, 공부) 연호는 건양과 광무로 하였으며 러시아의 남하평창으로 노일(露日)전쟁이 일어나 러시아가 패배하자 가라후도 반도를 점유하니 일본의 침략 독무대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고종 광무 9년(1905)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이 체결 국권이 상실하게 되었으며 순종융희 4년 7월 14일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9월 1일 순종을 이왕(李王)으로 고종은 이대왕(李大王)으로 황태자를 왕세자로 개칭 영친왕은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방자여사와 결혼을 시킴으로써 조선조는 27대왕 504년만에 패망되었다.

○ 일제의 식민정책

1910년 합병 조약에 조인한 일본은 9월 1일 순종을 이왕으로 고종을 이태왕으로 황태자를 왕세자로 개칭하고 76명의 친일 분자에게 작위를 주었다.

통감부를 총독부로 개칭하고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무단정치를 시작하였다.

총독은 일본 천황의 직속으로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은 초연한 지위를 가지고 모든 관리의 인사권, 군의 통솔권, 제령 입법권, 판검사의 임명권 등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한손에 잡아쥐고 행사하였으며 총독부 관원 총원이 약 1,000명인데 그중 40명의 한국인은 말단직원으로 배정하고 지방 행정은 13도, 12부, 319 군, 4,338면으로 나누어 도장관, 부윤, 군수, 면장을 배치하는 한편

치안은 헌병과 경찰을 통하여 경무 총감부에서 조선 통치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초대 총독테라우찌는 막강한 권력으로 무단 정치를 감행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모든 단체의 해산은 물론 일진회 등도 해산시켰으며 모든 신문은 폐간하고 어용신문인 경성일보, 매일신보만 존속케 했다. 각급 학교에는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여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말을 국어라 하여 강제 상용케 하였다.

또 한국 역사와 한국 지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수십만권의 서적을 압수 소각하였으며 이와 같이 우리말과 우리 글자를 없앴던 것이다.

○ 식발령과 창씨개명

일제는 전국에 식발령을 발표 전부 머리를 깎도록 하는 한편 강제로 일본 이름으로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 호적을 개편하였다.

○ 대동아전쟁의 발발과 생활상태

일본은 동조수길(東條英機) 수상이 1941년 12월 4일 대동아전쟁을 일으켜 하와이 공격과 아울러 중국으로 진격 북경, 남경, 상해를 거쳐 남양군도 말레이시아, 베를린, 싱가포르 등 공격을 감행할 당시 우리나라의 장년은 가라후도 아오지마 북해도 등지의 탄부와 전쟁종군 인부로 강제 징병을 착출하였으며 18세 이상 청년들은 징병 학생은 학도병으로 처녀들은 최일선지구 위안부로 동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들은 새끼와 가마니공출 유리그릇 수집헌납 아침 일찍 일어나 퇴비장려 운동을 하면서 농촌에서는 추곡 중 벼는 전부 공출로 빼앗기고 강보리밥, 조밥, 수수밥, 호밀밥, 조당수, 시래기죽, 피삼죽, 김치죽, 콩나물죽, 밀개떡과 밀전병, 수수부깨미, 감자범벅, 모밀칼쥬두기, 감자와 옥수수 만주로부터 들어온 콩깍묵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서울에서는 요소에 식량 배급소를 설치 잡곡만으로 배급을 하였는데 그나마 배급량이 적어서 시골로 내려와 감자와 옥수수, 호박, 시래기를 얻으려 빈번하게 오르내리면서 비참한 생계를 유지하였다.

우리고장 3·1운동 전개현황

조선민족대표 손병희(孫秉熙) 이하 233인은 광복을 위하여 죽음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서하고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학생 5,000여명과 군중 수십만명이 모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서를 뿌리고 한용운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하늘높이 불러 천지가 진동하는 가운데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인의 자주임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인류평화의 대의를 세우고자 일파는 종로를 통과 대한문으로 들어가 빈전을 향하여 국궁으로 조례를 하였고 각국 영사관에 들어 독립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의 만세시위운동을 하니 외국인들은 우리민족에 대하여 문화민족의 진실한 기백에 놀랐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왜 헌병과 경찰은 말을 타고 노도와 같이 돌진하는데는 어찌할 수 없었는지 오후 6시까지 지휘를 하였으며 3월 3일 국장(고종황제) 당일에는 고국 애제의 영결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모여든 50여만의 인민이 애도하고 돌아가면서 각 종교단체를 통하여 독립선언운동이 비밀리에 계획되었다는 것을 통감 전국 방방곡곡, 시장, 학교, 사원 등지에서 만세운동이 각 지역 600여개소에서 3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연달았다.

- 본군에서는 독립운동사 제2권(1972년 12월 15일 발행) 자료집 재판기록에 의하면 제1차 독립운동 발상지는 3월 10일 와석면 교하리 교하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구세군 임명애(林明愛)가 주동이 되어 학생 100여명을 동원 대한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하였으며 3월 25일 김수덕, 김선명 등이 임명애의 집에서 구세군 염규호가 「오는 3월 28일 동리사람들은 일동 집 뒷산으로 모이라 집합치 않는자는 집에 방화하겠다」는 원고를 작성 60매를 등사 와동, 당하리에 배포하고 3월 26일 교하리 염규호, 김창실, 김수덕 등이 근동에서 모여든 700여명을 인솔 만세시위를 하면서 행진 와석면 사무소를 습격 유리창을 깨고 면서기 2명에게 휴무할 것을 요구하다 체포

되었으나 최홍주(崔鴻柱)가 총살되고 해산하였다. 따라 3월 26일 밤 와석면 청석면 일대 수백명이 장면산과 심악산에 올라 봉화운동을 하자 이로 인하여 각지로 전파되었다.

- 제2차적으로 3월 27일 광탄면 발랑리 조무세(曹茂釗)외 8명이 주동이 되어 주민 백여명이 광탄면사무소 앞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하였고 이어 3월 28일 심상각(沈相恪)선생이 주동하에 각 면대표 19명이 규합 광탄면사무소 앞에서 수백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운동만세를 부르며 봉일천까지 행군 공능장에 모인 군중 천여명이 합세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4, 5명이 희생된 후 해산되었다.
- 3월 27일 문산주민들은 문산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문산천나루를 끼고 늦은밤까지 봉화불을 들고 행진하였다.
- 3월 29일밤 적성면 장과리 한은동(韓殷東)은 구장 유병성(柳秉性) 방에서 유병익, 우춘산 등 여러사람들이 모여 시국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을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자는 결의하에 3월 31일 밤 뒷동산에서 20여명에 군중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횃불을 올리었다. 이어 그후 각지에서 소수의 군중등이 대한독립만세 시위를 불렀다.



〈파주 3·1운동 기념비〉

독립운동사 제2권 제3절 파주군(坡州郡)편

(대정 8년(1919) 3월 1일)

○ 파주군에서의 만세시위는 와석면(瓦石面)〈지금 교하면〉 교하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3월 10일 교하리 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그곳에 집합한 그곳 학생 1백여명을 동원하여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주동 인물은 구세군의 임명애(林明愛)로서 자기가 학교 운동장에 나와 큰 소리로, ‘대한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여기에 따라 학생들도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3월 25일에는 김수덕(金守德), 김선명(金善明) 등이 임명애의 집에서 등사판으로 격문을 인쇄하였다. 격문의 원고는 구세군의 염규호(廉圭浩)가 쓴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는 28일 동리 산으로 일동은 모이라. 집합치 않는 자의 집에는 방화하겠다.”

격문은 약 60장을 인쇄하여 주로 김창실 등이 와동리(瓦洞里)·당하리(堂下里) 등지에 배부하였다.

3월 26일에 교하리의 염규호·김창실·김수덕 등이 그 부근에서 모여든 군중 약 7백명을 인솔하고 와석면 사무소로 시위행진하여 면사무소 유리창을 깨뜨리고 면서기 2명에게 휴무(休務)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행은 주재소로 향하자 미리 경비 나와 있던 헌병이 발포하여 당하리 사는 최홍주(崔鴻柱)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군중은 일제히 해산하였다. 후에 독립만세의 주동 인물로 임명애·염규호·김창실·김수덕이 검거되어 모진 고문끝에 투옥당했다.

청석면에서는 3월 26일 밤에 봉화를 올렸다. 이날밤 청석면 일대 높은 산에는 봉화불이 널려져 있고 곳곳에서 만세 부르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지형적으로 청석면(靑石面)에서는 김포·개풍·장단 등의 일부를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봉화는 고양군으로 번지고 이것이 다시 파주군 일대로 전파된 것

이다.

다음 날은 청석면의 높은 산인 심악산(深岳山)에 백의(白衣)의 군중이 장사진을 치고 모여들었다. 수백 명의 농민으로 산은 하얗게 변하였다. 정오가 지나자 군중은 산에서 내려와 청석면 사무소로 시위행진하였다. 이때 보통학교 학생들이 선두에서 태극기를 들고 갔는데 군중은 오후 2시경에 면사무소 앞뜰에 모였다.

“면장은 나와 만세를 부르라.”하고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에 면장 유병익(柳炳益)이 할수없이 나와 군중에게 “고 타일 “진정하라.” 고 타일렀다.

그런 중에 돌을 던진 사람이 있어 건물의 기와 몇 장과 유리창 1, 2장이 깨졌다. 면장도 만세를 같이 부르고 곧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듣지않고 교하리에 있는 주재소로 시위행진하던 중 교하리에서 헌병의 발포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해산하였다.

계속하여 3월 27일 밤에도 봉화는 일어나고 만세의 함성이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왔다. 며칠 후, “만세 부른 사람을 잡아 간다.”

하는 말이 떠돌았다. 순박한 농민들은 집을 비워 두고 밖으로 나아가 밤을 지내는 형편이었다. 농사철에 접어들면서부터 세상은 조금 가라앉아 농민들은 마음놓고 일하였다. 웬일인지 이 해는 가뭄과 태풍으로 흉년이였다.

- 광탄면 발랑리(廣灘面發郎里)의 조무쇠(曹茂釧)·이인옥(李仁玉)·남동민(南東敏)·정천화(鄭天和)·정갑석(鄭甲石)·이기하(李起河)·정봉화(鄭奉和)·강흥문(康興文) 등 8명은 3월 27일에 발랑리에서 동리 사람 수백명과 같이 광탄면 사무소로 가 그 앞에서 만세시위를 했다. 이때는 주동 인물도 없고 발랑리의 부락민이 서로 모여 자유적인 시위를 한 것이다.

다음 날인 28일에도 광탄면 사무소 앞에 집합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벌이었다. 그들은 계속하여 조리면(條里面) 봉일천리(奉日川里)까지 행진하여 봉일

천 장날에 많이 모인 군중을 동원하여 만세를 불렀다. 이 때 군경이 출동하여 발포까지 하여 사상자 4, 5명이 생겼다.(대정 8년 3월 28일 서기 1919년)

파주군의 군청 소재지 문산에서는 3월 27일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하였는데 군중은 약 2백여 명이었다. 밤에는 문산천의 나루를 끼고 각처에서 봉화가 올랐다.

이밖에도 파주군내 각면에서 봉화와 만세가 일어나 민족저항을 했다.

적성면 장파리(積城面 長坡里)〈지금 파주군〉한은동(韓殷東)은 3·1운동이 각지에 서 활발히 전개되자 자기들도 여기에 참여코자 하였다. 이해 3월 29일 밤 장파리 구장 유병성(柳秉性) 방에서 유병익(柳秉翼)·우춘산(禹春山) 등 여러 사람과 같이 앉아 시국(時局) 이야기를 하였다. 한은동이,

“다른 마을에서는 독립만세를 모두 부르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여기에 호응하여 부르는 것이 좋겠다.”

제의하자 여러 사람이 모두 찬성하여 3월 31일 밤 동리 뒷동산에서 20여 명의 군중과 같이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고 횃불을 올렸다.

○ 이 유(재판기록)

제1. 피고 임명애는 대정 8년 3월 10일 경기도 파주군 와석면 교하리 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그 곳에 집합한 동교생도 100여명을 선동, 같이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하려고 꾀하여 이 날 시위생도들의 눈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전기 생도들을 선동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제2. 피고 김수덕·김선명·염규호·임명애는 대정 8년 3월 25일 피고 염규호 집에서 김창실과 모의한 끝에 격문을 배부, 자기 면민들과 조선독립운동을 하려고 꾀하여 이 날 소관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서 같이 등사판으로 ‘오는 28일 이민 일동은 윤환산으로 집합하라. 만약 이에 불응하면 방화할 것이다’는 취지의 불온문서 60매를 인쇄하여 그 날로 위 문서의 일부를 와석면 당하리에 반포함으로써 그 지방의 정일을 꾀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당 법정에서 피고 김수덕이 말한 ‘금년 3월 25일 밤 같은 피고 염규호 집에서 자기와 같은 피고 김선명과 “군중을 모아서 함께 조선독립운동을 하자”고 협의한 결과, 출판물을 발행하기로 되어 피고 염규호가 원고를 작성하고 자기가 등사판을 빌려왔다. 김선명이 위 등사판으로 약 60매를 인쇄하였다. 그 문서의 주장되는

뜻은 “오는 28일 윤환산에 일동이 집합하라. 집합하지 않는 자의 집에는 방화할 것이다”는 취지가 쓰여져 있었다. 위의 60매를 3분하여 김선명·염규호·김창실이 각 곳에 배부하기로 되었으나 실제로 배부한 자는 김창실 뿐이다. 그리고 위 출판에 대하여는 인쇄·발행에 있어서 누구누구 구별 없이 같은 피고들 전체가 한 것으로서 인쇄 및 발행에 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의 공술

피고 임명애에 말한 ‘조선독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정 8년 3월 10일 살고 있는 동리의 공립 교하(交河) 보통 학교 운동장의 100여 명 생도가 있는 곳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생도를 선동하였으며, 또한 3월 25일 김수덕·김선명이 자기 집에 와서 “조선독립운동에 관한 예비 의논을 하겠으니 방을 빌리라”고 하므로 그들에게 빌려 주었는데, 위 양 인은 ‘독립운동을 하려면 격문을 배포하여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일번 인쇄를 하고 있었으며 자기도 이에 찬성하여 곁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공술,

피고 염규호가 말한 ‘3월 25일 자기집에 김수덕·김창실 등이 모여 “조선독립운동에 관하여 이민을 모은다”고 하므로 이에 찬성하여 자기가 원고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60매의 인쇄물을 만들어 그 일부를 김창실이 구당리(九堂里)·당하리(堂下里)에 배부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 임명애의 제1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대전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의하여 범죄 후의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10조에 의거 신·구 양법을 비교 대조하여 강한 보안법을 따를 것이다. 제2의 각 피고의 소위 중,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인쇄한 점은 출판법 제11조 제2호, 제1항 제3호,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전기 문서를 발행한 점은 출판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그것을 발행하여 치안을 발행한 점은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의 보안법 위반과 발행에 의한 출판법 위반은 1소위이므로 형법 제54조·제10조에 따라 보안법 위반의 형을 중하게 여기며 임명애 이외의 각 피고에게 대하여는 제2사실 중의 인쇄에 의한 출판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의 병발이고 피고 임명애의 제1·제2의 보안법 위반은 연속범이므로 형법 제55조를 적용하여 위의 보안법 위반 및 인쇄에 의한 출판법 위반의 병합 죄이므로 이상 각 피고에 대하여 보안법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47조·제10조에 의하여 중한 보안법의 형에 법정가중을 하여 그 형의 범위에서 처단할 것이며, 압수 물건은 몰수에 걸리지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제술인에게 반환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3일

경성 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경일이(境一以)

비고 : 임명에 이외의 3인은 경성 복심법원에 공소, 대정 8년 7월 23일 모두 기각되었
고(대정 8년 형공 제690호), 고등법원에 상고, 대정 8년 9월 29일 기각됨(대정
8년 형상 제823호).

판 결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발랑리(廣灘面 發郎里)

농업 조무쇠(曹茂釗) 26세

위와 같은 곳

농업 이인옥(李仁玉) 28세

위와 같은 곳

농업 남동민(南東敏) 24세

위와 같은 곳

농업 정천화(鄭天和) 31세

위와 같은 곳

농업 정갑석(鄭甲石) 26세

위와 같은 곳

농업 이기하(李起河) 22세

위와 같은 곳

농업 정봉화(鄭奉和) 28세

위와 같은 곳

농업 강흥문(康興文) 28세

위의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 총독부 검사 친전 의태랑(親田 衣太郎)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8명을 각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들은 조선 각지에서 행하여진 독립운동의 기사에 찬동하여 모두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대정 8년 3월 27일 이민 수십명과 함께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사무소 앞에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또한 계속할 의사로 이튿날 28일 이민 1천여명과 같이 동면 사무소 앞에 모여 이 곳으로부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동면내 봉일천(奉日川) 시장에 이르기까지 독립시위운동을 함으로써 안녕 질서를 방해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피고들이 당 법정에서 말한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본건은 범죄 후의 법령으로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의 형을 비교 대조하여 그 경한 것을 사용할 것이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하므로 그 경한 구법인 보안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산리 3·1운동 발상비 전경

三一運動 發祥碑 (광탄중고등학교 교정)

西紀 1910年 庚戌 平和롭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錦繡江山에 바다 건너 殘虐無道한 倭寇들의 발길에 더럽혀지자 護國先烈들은 限을 머금고 혹은 海外로 亡命하여 各國을 巡訪하면서 祖國의 獨立을 呼訴하고 혹은 國內에서 끈질기게 抗日鬭爭을 계속하였다. 西紀 1919年 高宗皇帝의 昇遐로 온 國民은 나라 잃은 슬픔과 함께 民心은 極度로 動搖되었고 그해 3月 1日 正午를 기하여 서울답골공원에서 民族代表 33人에 의한 獨立宣言文이 發表되자 2千萬 全國民이 하나로 大韓獨立萬歲를 高唱하니 天地가 震動하며 倭寇들의 가슴을 서늘케 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坡州郡 3·1運動 發祥地인 이곳 廣灘에서는 又 山 沈相恪 石泉 金雄權 兩先生의 主動으로 그달 27日 奉日川장날 19人同志會員이 앞장을 서 大韓獨立萬歲를 絶叫하여 太極旗를 높이 드니 民族魂은 萬丈山下에 메아리치고 先烈들의 憂國忠節은 江山도 感動시켰다.

怨讎의 凶劍앞에 赤手空拳으로 맞서니 壯하여라. 犧牲된者 살아나고 高喊친자 永遠히 勝利했도다. 後生들이여 先烈들의 有志를 받들고 3·1精神을 이어받아 兩斷된 祖國統一을 향해 總邁進할 것을 다시 한번 闡明하는 바이다.

西紀1978年 3月 1日 廣灘面民 一同

顧問：國會議員 朴明根, 坡州郡守 姜道熙, 太陽農場 孫範善

推進委員長 曹守天, 副委員長 金先會, 總務 崔甲得,

監查：禹鍾國, 崔敬安, 委員 南相烈外 40名,

理事 閔孝植外 35名, 향 우 회：우중설외 8名

독립운동사 (제2권)

3·1운동사 상

독립운동사자료집(제5집) 3·1운동재판기록
1972년 12월 10일 인쇄, 1972년 12월 15일 발행

편찬 : 독립운동사 편 찬 위 원 회
발행 :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운영위원회

제2절 장단군(長湍郡)

장단군 상도면 북리(上道面北里) 공세영(孔世榮)은 4월 9일 연천군 왕증면 강서리(旺澄面江西里)의 이헌수(李憲秀)에게,

“나는 경성 결사단 파견원으로서 각지의 독립운동 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이다. 연천군 왕증면의 독립운동의 상황과 주동 인물의 이름을 알려 다닌다. 근일 서울에서 매일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일제 관헌은 겨우 1일간 구속했다가 내 준다. 그러니 이곳에서도 독립운동을 일으키라.”고 하였다.

그는 그후 독립운동의 선동자라는 죄목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당했다. 대남면 장대리(大南面長垞里) 사는 함정원(咸貞元)과 동리 이재삼(李在三)은 4월 1일 각 동장에게 만세시위를 벌이도록 전하고 그날 각자 태극기와 등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함정원은 태극기를 들고 대남면 위천리 용산동(渭川里龍山洞)에서 동리 사람 약 2백여 명과 대남면 사무소와 사립 명성 학교(明成學校) 교정을 돌면서 독립만세 시위를 하였다.

함정원은 4월 3일에도 계속하여 대남면민 1천여 명과 함께 대남면 사무소와 학교를 돌면서 만세시위를 크게 벌였다.

장도면 항동리(長道面項洞里)에 거주하는 우정시(禹禎時)와 우정화(禹禎和) 등은 음력 2월 28일 밤에 항동리에서 동리 사람 수 10명과 함께 도덕암산(道德岩山)에서 화불을 올리며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다. 다음 날은 동리 시라위산 위에서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불렀고, 30일 밤에는 동리 사람 약 70명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장도면 사무소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면장을 내세우고 만세를 부르게 하였다.

음력 3월 2일에는 항동리 구시장 자리에서 만세를 부르고 고랑포 장날인 이날 장에가는 장꾼 1백여 명과 함께 대한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다.

진서면 경릉리(津西面景陵里) 이봉철(李奉哲)은 3월 29일 밤에 진서면 면민 1백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진서면 사무소로 시위행진을 하였다. 그는 면장 송원섭(宋元燮)에게 만세를 부르게 하고,

“일본 국기를 소용없다. 내 놓아라.”

하고 면사무소 안에 있는 일본 국기 상자를 꺼내어 불태웠다.

불타는 일본 국기를 바라보며 군중은 광희하며 더욱 기세를 올렸다.

진남면 동장리(津南面東場里)의 이창영(李昶永)·강규수(姜奎秀)·한기동(韓基東)·정순만(鄭順萬)·백태산(白泰山)·조진행(趙秦行)·이성구(李聲九)·양세영(梁世瑛)·정종락(鄭鍾樂) 등은 자기 동리에서도 만세시위를 벌이기 위하여 3월 26일 밤에 동장리에 있는 사립 성화 학교(聖化學校) 뒤에서 모여든 1백여명과 같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계속해서 부근 일대를 시위행진하였다. 시위행렬은 이창영 등의 지휘로 면사무소로 향하였다. 면사무소에서 면장을 찾았으나 도망친 후였다. 흥분한 군중은 돌·흙덩이·몽둥이 등으로 유리창 10여 매를 부수었다.

제3절 파주군(坡州郡)

파주군에서의 만세시위는 와석면(瓦石面)〈지금 교하면〉교하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3월 10일 교하리 공립 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그곳에 집합한 그곳 학생 1백여 명을 동원하여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주동 인물은 구세군의 임명애(林明愛)로서 자기가 학교 운동장에 나와 큰 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고 여기에 따라 학생들도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3월 25일에는 김수덕(金守德), 김선명(金善明) 등이 임명애의 집에서 등사판으로 격문을 인쇄하였다. 격문의 원고를 구세군의 염규호(廉圭浩)가 쓴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는 28일 동리 산으로 일동은 모이라. 집합치 않는 자의 집에는 방화하겠다.”

격문은 약 60장을 인쇄하여 주로 김창실 등이 와동리(瓦洞里)·당하리(堂下里) 등지에 배부하였다.

3월 26일에 교하리의 염규호·김창실·김수덕 등이 그 부근에서 모여든 군중 약 7백 명을 인솔하고 와석면 사무소로 시위행진하여 면사무소 유리창을 깨뜨리고

면서기 2명에게 휴무(休務)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행은 주재소로 향하자 미리 경비 나와 있던 헌병이 발포하여 당하리 사는 최홍주(崔鴻柱)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군중은 일제히 해산하였다. 후에 독립만세의 주동 인물로 임명애·염규호·김창실·김수덕이 검거되어 모진 고문끝에 투옥당했다.

청석면에서는 3월 26일 밤에 봉화를 올렸다. 이날 밤 청석면 일대 높은 산에는 봉화불이 널려져 있고 곳곳에서 만세 부르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지형적으로 청석면(靑石面)에서는 김포·개풍·장단 등의 일부를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봉화는 고양군으로 번지고 이것이 다시 파주군 일대로 전파된 것이다.

다음 날은 청석면의 높은 산인 심악산(深岳山)에 백의(白衣)의 군중이 장사진을 치고 모여들었다. 수백 명의 농민으로 산은 하얗게 변하였다. 정오가 지나자 군중은 산에서 내려와 청석면 사무소로 시위행진하였다. 이때 보통학교 학생들이 선두에서 태극기를 들고 갔는데 군중은 오후 2시경에 면사무소 앞뜰에 모였다.

“면장은 나와 만세를 부르라.”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에 면장 유병익(柳炳益)이 나와 군중에게

“진정하라.”고 타일렀다.

그런 중에 돌을 던진 사람이 있어 건물의 기와 몇 장과 유리창 1, 2장이 깨졌다. 면장도 만세를 같이 부르고 곧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듣지 않고 교하리에 있는 주재소로 시위행진하던 중 교하리에서 헌병의 발포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해산하였다.

계속하여 3월 27일 밤에도 봉화는 일어나고 만세의 함성이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왔다.

며칠 후, “만세 부른 사람을 잡아 간다.”

하는 말이 떠돌았다. 순박한 농민들은 집을 비워 두고 밖으로 나아가 밤을 지내는 형편이었다. 농사철에 접어들면서부터 세상은 조금 가라앉아 농민들은 마음놓고 일하였다. 웬일인지 이 해는 가뭄과 태풍으로 흉년이었다.

광탄면 발랑리(廣灘面發郎里)의 조무소(曹茂釧)·이인옥(李仁玉)·남동민(南東

敏)·정천화(鄭天和)·정갑석(鄭甲石)·이기하(李起河)·정봉화(鄭奉和)·강흥문(康興文) 등 8명은 3월 26일에 발랑리에서 동리 사람 수백 명과 같이 광탄면 사무소로 가 그 앞에서 만세시위를 했다. 이 때는 주동 인물격도 없고 발랑리의 부락민이 서로 모여 자유적인 시위를 한 것이다.

다음 날인 27일에도 광탄면 사무소 앞에 집합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벌이면서 조리면(條里面) 봉일천리(奉日川里)까지 행진하여 봉일천 장날에 많이 모인 군중을 동원하여 만세를 불렀다. 이 때 군경이 출동하여 발포까지 하여 사상자 4, 5명이 생겼다.(대정 8년 3월 28일 서기 1919년)

과주군의 군청 소재지 문산에서는 3월 27일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하였는데 군중은 약 2백여 명이였다. 밤에는 문산천의 나루를 끼고 각처에서 봉화가 올랐다.

이밖에도 과주군내 각면에서 봉화와 만세가 일어나 민족 저항을 했다.

제4절 연천군(漣川郡)

연천군에서도 3월 21일부터 만세시위가 일어나 4월 10일까지 계속되었다. 중요한 곳은 연천읍내 백학면·두일 장터·마전·삭영·적성 등지이다. 대부분이 시위로서 끝났으며 큰 충돌은 없었다.

연천군 중면 적거리(中面赤巨里)의 나용기(羅龍基)는 독립운동이 전개된 이후 3월 31일 자기 집에서 이홍식(李洪植)을 불러들여 독립운동을 논의하였다. 나용기는 4월 1일 오전 7시경에 새양골에서 만세시위를 하도록 사람을 집합시키려고 서당 교사 이홍식에게 글을 쓰게 하였다. 이홍식은 문서 6통을 작성하여 한씨동(韓氏童)·나개똥(羅開童) 등이 중면 각지의 구장에게 전달하였다.

그날, 즉 4월 1일이 되자 중면 삼곶리(三串里) 이민 약 4백 명은 나용기가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연천 읍내로 일대 만세시위를 벌이며 행진하였는데, 읍 근처에 이르러 헌병대와 잠시 대치하다가 나용기는 잡히고 군중은 해산하였다. 이때 나용기는 60이 넘었다.

관인면 삼률리(官仁面三栗里)의 조아당(趙亞當)은 기독교 신자로서 조국 독립

에 뜻을 두고 있던 중 3·1운동이 일어나자 4월 1일 중면 삼거리 노상에서 동리 사람 4백 명과 함께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는 다시 관인면의 박용길(朴龍吉)과 만세시위를 하고자 상의한 후 격문을 썼다.

“지금 조선 전도에서 학생과 일반 민중이 독립을 부르짖고 각지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모여 독립만세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 동리도 여기에 찬동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하려 하니 4월 10일 신촌동 다랑고개에 집합하자. 그러면 그곳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를 하겠다. 만일 이날 집합하지 않으면 후일 큰 화를 당하리라.”

이러한 격문을 박용길이 관인면내 각 구장에게 발송하였다.

4월 10일이 되자 군중 수백 명이 다랑고개에 모였다. 조아당은 태극기 2자루를 들고 나아가 선두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삼률리·신촌동·남창동으로 시위운동을 벌이고 기세를 올렸다.

적성면 장파리(積城面長坡里)〈지금 과주군〉한은동(韓殷東)은 3·1운동이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자 자기들도 여기에 참여코자 하였다. 이해 3월 29일 밤 장파리 구장 유병성(柳秉性) 방에서 유병익(柳秉翼)·우춘산(禹春山) 등 여러 사람과 같이 앉아 시국(時局) 이야기를 하였다. 한은동이,

“다른 마을에서는 독립만세를 모두 부르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여기에 호응하여 부르는 것이 좋겠다.”

제의하자 여러 사람이 모두 찬성하여 3월 31일 밤 동리 뒷동산에서 20여 명의 군중과 같이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고 횃불을 올렸다.

백학면 두일리(白鶴面斗日里)에서는 미산면 석장리(嵎山面石牆里)에 사는 조우식(趙禹植)이 주동이 되어 3월 21일 두일 장날을 기회로 하여 장에 모인 군중과 같이 만세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정현수(鄭賢秀)와 함께 면장을 데려다 만세를 부르게 했다.

이 유

거리에 있는 사립 성화학교 앞에 모여 한국만세를 외치고 있더니, 얼마 안있다가 면사무소 앞으로 습격하여 와서 군중속의 4, 5명은 뜰안으로 들어와 사무소의 바

갈 유리 문을 향하여 투석하고, 다른 군중도 이에 이어서 돌 안으로 난입하여 투석, 출입구 좌측 바깥 유리문의 유리 17매, 사무소 입구에 있는 문동의 유리 4매를 파괴하고 물러가 헤어졌다'는 취지, '그 날 밤 자기에게 급보가 있었으나, 아무리 하여도 민심이 격앙한 때이어서 위험하여 면사무소에 나가지 않고 이튿날 아침에 출근하여 보니까 자기가 관장하는 면사무소에 위와 같은 피해가 있기에 고소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 9명의 제1 소위는 범죄 후의 법령으로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8조·제6조에 따라 신·구 양법을 비교하여 그 경한 것을 적용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 소위는 신법에 의하면 각각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해당하고, 구법에 의하면 각각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며, 형법 제10조에 따라 이를 대조하면 각각 구법의 형이 경하므로 각각 전기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할 것이며, 피고 이창영·강규수·한기동·정순만·백태산·조진행·이성구·양재영의 제2 소요의 소위는 각각 형법 제106조 제2호에 해당하고, 피고 이창영·강규수·한기동·정순만의 제2 기물손괴(器物損壞)의 소위는 각각 동법 제261조·제264조에 해당하고, 피고 이창영·강규수·한기동·정순만의 소요 및 기물 손괴의 소위는 각각 1개의 행위로서 2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에 따라 각각 중한 소요죄에 과할 형으로써 처단하고, 피고 이창영·강규수·한기동·정순만·백태산·조진행·이성구·양재영에게 대하여 각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할 것이며, 그리고 동 피고문은 동법 제45조 전단에 의하여 2조의 병합이므로 동법 제47조·제10조에 의거 중한 소요죄에 과할 형에 따라 동법 제47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을 할 것이며, 그러므로 피고 9명은 모두 전기한 각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 이창영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피고 강규수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 한기동·정순만을 각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 백태산·조진행·이성구·양재영을 각각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 정종락을 징역 5월에 처할 것이며,

피고 백태산·조진행·이성구·양재영이 전기 소요 때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불충분하다. 그러나 이것은 전기 소요죄와 1개

의 행위로서 기소된 것이므로 특히 이점에 대하여 무죄의 언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위와 동일한 취지에서 나온 원 판결은 타당하며, 피고 9명의 공소는 각각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7월 21일

경성 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총원 우태랑

비고 : 정종락을 제외한 피고 8명은 고등법원에 상고, 대정 8년 9월 27일 모두 기각됨(대정 8년 형상 제799호).

판 결

경기도 장단군 상도면 상리(上道面上里)

농업 : 공세영(孔世榮) 30세

위의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대리 사법관 시보 태재명(太宰明)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고아 같다.

주 문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 피고는 대정 8년 4월 9일 경기도 연천군 왕증명 강서리(旺澄面江西里) 이현영(李憲榮)에게 대하여 ‘자기는 경성 결사단(決死團) 파견원인데, 각지에서의 독립운동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이다’고 하여 그 지방의 독립운동상황 및 주모자의 주소 성명 등을 물은 다음, ‘경성에서는 매일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관헌에게 인치되어도 겨우 1일쯤의 검속 처분으로 석방되니, 동지를 규합하여 독립운동을 하라’고 권하여 이를 선동함으로써 안녕 질서를 방해한 자이다. 또한 피고는 대정 7년 3월 15일 당원 지청에서 공갈 취재죄(取財罪)로 징역 6월에 처하여져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자이다. 판시 사실 및 처형 사항은 피고가 당 법정에서 말한 그러한 뜻의 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건대, 본건은 범죄 후의 법령으로 형이 변경된 것이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의 형을 비교 대조하여 그 경한 것을 적용할 것

이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범이므로 형법 제56조 제1항·제57조를 적용하여 법정 가중을 할 것이며,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범이므로 형법 제56조 제1항·제57조를 적용하여 법정 가중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경한 전자의 죄의 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으로 여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2일

경성 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유택작치(有澤作治)

비고 : 경성 북심법원에 공소, 대정 8년 7월 1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언도를 받음(대정 8년 형공 제579호)

판 결

본적 : 경기도 파주군 와석면 교하리(瓦石面交河里) 352번지

학생 : 김수덕(金守德) 당 16세

본적 : 경기도 파주군 와석면 교하리 311번지

농업 : 김선명(金善明) 당 24세

본적 : 경기도 파주군 와석면 교하리 578번지

농업 : 구세균 염규호(廉圭浩) 38세

본적 : 경기도 파주군 와석면 교하리 578번지

농업 : 구세균 임명애(林明愛) 32세

상기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경장삼랑(境長三郎)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임명애를 징역 1년 6월에, 그 나머지 각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제출인에게 반환한다.

※ 대정 8년 = 1919년

이 유

제1. 피고 임명애는 대정 8년 3월 10일 경기도 파주군 와석면 교하리 공립보통 학교 운동장에서 그곳에 집합한 동교생도 100여명을 선동, 같이 조선독립 시위 운동을 하려고 꾀하여 이날 위 생도들의 눈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전기 생도들을 선동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제2 피고 김수덕·김선명·염규호·임명애는 대정 8년 3월 25일 피고 염규호 집에서 김창실과 모의한 끝에 격문을 배부, 자기 면민들과 조선독립운동을 하려고 꾀하여 이 날 소관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서 같이 등사판으로 ‘오는 28일 이민 일동은 장명산으로 집합하라. 만약 이에 불응하면 방화할 것이다’는 취지의 불온 문서 60매를 인쇄하여 그 날로 위 문서의 일부를 와석면 당하리(堂下里)에 반포함으로써 그 지방의 정밀을 깬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당 법정에서 피고 김수덕이 말한 ‘금년 3월 25일 밤 같은 피고 염규호 집에서 자기와 같은 피고 김선명과 “군중을 모아서 함께 조선독립운동을 하자”고 협의한 결과, 출판물을 발행하기로 되어 피고 염규호가 원고를 작성하고 자기가 등사판을 빌려 왔다. 김선명이 위 등사판으로 약 60매를 인쇄하였다. 그 문서의 주장되는 뜻은 “오는 28일 장명산에 일동이 집합하라. 집합하지 않는 자의 집에는 방화할 것이다”는 취지가 쓰여져 있었다. 위의 60매를 3분하여 김선명·염규호·김창실(金昌實)이 각 곳에 배부하기로 되었으나 실제로 배부한 자는 김창실 뿐이다. 그리고 위 출판에 대하여는 인쇄·발행에 있어서 누구누구 구별 없이 같은 피고들 전체가 한 것으로서 인쇄 및 발행에 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의 공술,

피고 임명애가 말한 ‘조선독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정 8년 3월 10일 살고 있는 동리의 공립 교하(交河) 보통 학교 운동장의 100여 명 생도가 있는 곳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생도를 선동하였으며, 또한 3월 25일 김수덕·김선명이 자기 집에 와서 “조선독립운동에 관한 예비 의논을 하겠으니 방을 빌리라”고 하므로 그들에게 빌려 주었는데, 위 양 인은 ‘독립운동을 하려면 격문을 배포하여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일변 인쇄를 하고 있었으며 자기도 이에 찬성하여 곁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공술,

피고 염규호가 말한 ‘3월 25일 자기집에 김수덕·김창실 등이 모여 “조선독립 운동에 관하여 이민을 모은다”고 하므로 이에 찬성하여 자기가 원고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60매의 인쇄물을 만들어 그 일부를 김창실이 구당리(九堂里)·당하리(堂下里)에 배부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 임명애의 제1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의하여 범죄 후의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10조에 의거 신·구 양법을 비교 대조하여 경한 보안법을 따를 것이다. 제2의 각 피고의 소위 중,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인쇄한 점은 출판법 제11조 제2호, 제1항 제3호,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전기 문설글 발행한 점은 출판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그것을 발행하여 치안을 발행한 점은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위의 보안법 위반과 발행에 의한 출판법 위반은 1소위이므로 형법 제54조·제10조에 따라 보안법 위반의 형을 중하게 여기며 임명애 이외의 각 피고에게 대하여는 제2사실 중의 인쇄에 의한 출판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의 병발이고 피고 임명애의 제1·제2의 보안법 위반은 연속범이므로 형법 제55조를 적용하여 위의 보안법 위반 및 인쇄에 의한 출판법 위반의 병합 죄이므로 이상 각 피고에 대하여 보안법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47조·제10조에 의하여 중한 보안법의 형에 법정 가중을 하여 그 형의 범위에서 처단할 것이며, 압수 물건은 물수에 걸리지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제출인에게 반환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3일

경성 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경일이(鏡一以)

비고: 임명애 이외의 3인은 경성 복심법원에 공소, 대정 8년 7월 23일 모두 기각되었고(대정 8년 형공 제680호), 고등법원에 상고, 대정 8년 9월 29일 기각됨(대정 8년 형상 제823호)

판 결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발랑리(廣灘面發郎里)

농업 : 조무쇠(曹茂釗) 26세

위와 같은 곳

농업 : 이인옥(李仁玉) 28세

위와 같은 곳

농업 : 남동민(南東敏) 24세

위와 같은 곳

농업 : 정천화(鄭天和) 31세

위와 같은 곳

농업 : 정갑석(鄭甲石) 26세

위와 같은 곳

농업 : 이기하(李起河) 22세

위와 같은 곳

농업 : 정봉화(鄭奉和) 28세

위와 같은 곳

농업 : 강흥문(康興文) 28세

위의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 총독부 검사 횡전 의태랑(橫田依太郎) 관여로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8명을 각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들은 조선 각지에서 행하여진 독립운동의 기사에 찬동하여 모두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대정 8년 3월 27일 이민 수백명과 함께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사무소 앞에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또한 계속할 의사로 이튿날 28일 이민 1천여명과 같이 동면 사무소 앞에 모여 이 곳으로부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동면내 봉일천(奉日川) 시장에 이르기까지 독립시위운동을 함으로써 안녕 질서를 방해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피고들이 당 법정에서 말한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본건은 범죄 후의 법령으로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따라 신·구 양법의 형을 비교 대조하여 그 경한 것을 적용할 것이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하므로 그 경한 구법인 보안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

坡州三·一運動記念碑 建立發起趣旨文

日帝下 己未年 三·一運動은 우리 漢民族의 舉族的 民族自主獨立運動이었습니
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獨立國임과 自主民임을 世界萬邦에 嚴肅히 告하는 同時에
우리 온 겨레는 三千里 坊坊曲曲에서 손에손에 太極旗를 휘들으며 奮然히 일어
나 소리 높여 獨立萬歲를 외쳤든 것입니다. 잃었던 祖國을 다시 찾게 되고 나라
의 飛躍發展해 가는 이 강통위에 우리가 三一運動에 그 淵源을 두고 있는 것입
니다. 當時 우리 坡州에서도 草原의 불길같이 일어나는 이 거룩한 우리民族 自主
獨立運動에 積極 呼應하여 蜂起한바 있었으니 이를 主導하신 又山 沈相恪 先生
께서는 郡內各面의 同志十九人을 糾合하여 三月二七日을 期해 郡全體가 蜂起할
것을 謀議하였는바 當日은 서울에서의 舉事를 信號로 太極旗를 앞세워 廣灘面事
務所를 襲擊하고 그 餘勢를 모라 當時 南坡州에 日本人警察駐在所가 있는 奉日
川으로 進擊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同志들의 連絡에 依하여 各面에서 五千餘郡民이 물려 있었으니
함께 피를 吐해가며 獨立萬歲를 부르짖으면서 意氣도 堂堂하게 駐在所를 包圍하
였습니다. 이때 殘虐無道한 日警은 당황한 나머지 無差別 發砲를 하여왔으니 이
의 犠牲者만도 死亡者 六名, 重傷者 十二名, 輕傷者 五十餘名이었습니다. 이어찌
天人共怒할 일이라 아니하겠습니까?

日帝는 軍警合同으로 森嚴한 警戒網을 펴고 主謀者 索出에 血眼이 되었으니
又山 沈相恪先生과 石泉 金雄權先生은 上海로 亡命하시여 大韓民國 臨時政府에
參與하시고 繼續 抗日鬭爭에 앞장서시다가 金雄權先生은 五年後에 歸國하시고
又山 沈相恪先生은 解放後에 還國하시여 私立廣灘普通學校를 再建하시고 後陣養
成을 爲한 育英事業에 盡力하셨습니다.

八·一五解放이 되자 又山 先生께서는 그 翌年 三一節부터 新山國民學校校庭에
서 해마다 當時의 거룩한 犠牲者들의 慰靈祭를 奉行하였는바 六·二五動亂이 勃
發後 先生이 逝去하시자 이 또한 中斷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坡州는 當時 京畿道內에서도 水原郡에 다음가는 激烈하였던 고장으로서는 이러한 先人들의 愛國愛族精神을 報答하기 爲하여 解放後 宜當 記念碑塔이라도 建立하였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이제 晩時之膜에 없지 않아 하오나 이고장 三一運動을 主導하신 先覺者와 犧牲者의 靈魂을 慰安하고 그 冥福을 빌며 또한 追慕하는 뜻에서 今年 八·一五를 期하여 坡州 三一運動 記念塔과 이를 主導하신 분의 追慕碑를 建立코저 推進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오니 郡內外 有志 僉位의 많은 贊同과 協助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77. 3. 1.

坡州郡三一運動記念碑建立
發起人代表 丁大天, 曹守天, 李圭煥

坡州 3·1運動記念碑

◎ 建立趣旨文

西紀1919年 3月 1日 下午 2時 서울과고다 公園에서 獨立宣言書가 宣布되자 全國은 卽時 불뽐는 抗日獨立的 싸움터로 變했다.

우리 坡州의 先輩들도 이 義舉를 劃策하여 드디어 恭陵장날 3月 27日을 擇하여 獨立義舉에 들어선 것이나 倭警의 凶彈으로 많은 犧牲者를 낸것 어찌 잊으랴 잊을수 있으리요 解放도 30年 坡州의 有志들의 記念碑 建立을 爲하여 1977年 9月 3日 坡州郡民會館에서 그 委員會가 組織되자 郡民諸位는 즉시 이에 呼應하여 建立을 爲한 激勵와 誠金이 踏至하니 委員一同의 感激 이루 形言할바 아니었다. 이 3·1運動記念碑야말로 위로 坡州先烈의 偉勳을 萬世에 들어넘이요 아래로는 우리 先輩들에게 그 精神을 본받게 함에 있다. 여기 除幕式에 즈음하여 또한 誠意를 보인 郡民諸位의 芳名을 사겨두고자 한다.

西紀 1978年 3月 1日

坡州3·1運動記念碑建立委員會

委 員 長 朴 命 根

答

辭

오늘 이곳 由緒깊은 恭陵原頭에서 三一運動記念碑除幕式을 舉行함에 있어 當時 舉事에 參與하신 分들의 遺族을 代表하여 이 行事가 이루어지기까지의 物心 兩面으로 勞苦를 아끼지 아니하신 會長님을 爲始한 役員 및 郡民 그리고 在京有志 여러분께 忠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只今으로 부터 59年前 卽 1919年 日帝의 武斷政治에 못이겨 愛國愛族의 獨立志士들이 坊坊曲曲에서 大韓民國獨立萬歲를 외치자 이고장 坡州에서도 그해 3월 27일 이곳 奉日川에서 大대의 示威가 있자 殘忍無道한 日警의 銃칼에 쓰러졌고 붙들려 極刑에 處하였으며 또는 海外로 亡命의 길을 떠나기도한 일은 이미 잘 아시는 事實입니다. 그 後 日帝 36年間의 가진 苦楚를 겪어오다 1945年 8月 15日 日帝의 敗亡으로 先烈들의 訴願이 成就되어 解放을 맞이하였으나 뜻하지 아니한 三八線으로 國土는 兩斷되었고 1950年 民族相殘의 6·25事變때 이곳 또한 戰火에 쑥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大韓民國은 戰火의 廢墟를 잇고 눈부신 經濟成長과 함께 國力은 날로 伸張하여가고 國威를 四海에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國民들은 先烈들의 遺志를 받들어 總和團結로 祖國의 平和統一이 이룩될때까지 더욱 奮發하여 祖國中興에 邁進해야할 줄로 압니다. 끝으로 우리 遺族들은 先烈들의 遺志를 본받을 것은 勿論이거니와 郡民諸位께서도 當時 우리坡州郡이 京畿道內에서도 水原郡에 다음가는 大대의이며 極烈한 舉事였든 榮光스러운 事實을 恒時 回想하며 그 높은 뜻을 잊지마시고 그 거룩한 精神을 後孫들에게 이어줄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願컨데 이 記念塔이야말로 우리 坡州郡民의 愛國愛族에 對한 金字塔이될 것임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78年 9月 8日

遺 族 代 表
沈 寅 燮

坡州 3·1運動記念碑文(寫本)

여기는 坡州臨津의 나루를 뒤에지고 義州로 가는 國道の 길목이며 軍事의 據點이어서 옛부터 자주 戰亂에 휩쓸린 곳이다. 가까이 李氏王朝에 들어서도 壬辰倭亂에는 倭軍의 北上과 그 退却의 길이 되고 追擊의 明軍도 碧蹄館 싸움에 앞서 여기에 陣을 쳤고 宣祖二十六年 九月 遷都가 臨津나루의 싸움터를 지날때 陣亡 將士를 祭지내게 한 곳이고 仁祖反正에 伊川府使 李重老와 長湍府使 李曙가 軍士를 이끌고 合流한 곳도 여기이고 仁祖二年에 李适의 叛軍이 여기서 官軍을 물리치고 南下했고 그 五年에 官軍이 姜弘立을 앞세우고 여기를 거쳐 東進했고 丙子胡亂에 清軍이 여기를 짓밟고 南下했다. 이제 六·二五事變을 겪고도 北녘의 共產軍을 指呼의 사이에 두고 對峙하고 있으니 國土兩分도 슬프거니와 이 무슨 애끓는 試練이라 그러나 이런 歷史環境에서 우리坡州郡民의 피속에는 유달리 나라와 겨레를 爲하는 精神이 連綿相繼 되어온 것인데 一九一九年 己未 三·一運動이 일어나자 郡民의 끓는 피는 어찌 이를 坐視할 수 있었으랴 又山 沈相恪先生을 主導로한 一九人的 結社가 즉각 組織되고 郡民의 動員 그 時期의 決定·決行作戰의 策定이 順調로이 進行되어 그 密命이 倭警의 監視를 누비면서 各面의 有志에게 傳達되었으니 暴風前夜의 靜寂과도 같이 緊張의 時間이 흐른 것이다.

恭陵市場의 장날이 學事의 그날이었다.

雲集한 五千餘名の 群衆은 行動開始의 本部指示를 기다렸다가 指示가 내리자 一大示威로 들어가니 獨立萬歲의 喊聲은 怒聲와도 같이 地軸을 뒤흔들고 그 示威의 方向은 自然奉日川倭警 駐在所로 잡고서 二重三重으로 包圍를 좁혀갔다. 倭警들은 떨고 당황했다. 示威가 一步 一步 다가들자 倭警은 미친듯이 銃을 들고 無差別 射擊을 開始했다. 그러나 獨立萬歲의 高喊은 더욱 높아갔지만 空拳이 어찌 銃器에 맞설수 있었으랴 十名の 殉國者와 七十餘名の 負傷者를 내고 不得已 後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先輩들은 義學를 誇

示하거나 宣傳함이 없이 謙虛와 寡黙으로 자못 聖賢의 몸가짐과 같이 處身
 했으니 後輩들은 어렴풋이 이 義學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점점 忘却에
 가까이 잊어지려함에 있어 우리는 이 史實에 글을 엮어서 돌에 새겨 子孫 萬
 代에 傳하려한다. 이제야 우리는 누구나 先烈의 義學를 되새길 수 있고 그
 精神을 본받아 鄉土의 보람을 드높이게 되었으니 義學의 先烈들이시여 安心
 하시고 고이 잠드오시라.

坡州三・一運動을 主導하신분

沈 相 恪	金 雄 權	權 重 煥	朴 禹 鏞	白 翼 洙
沈 宜 鳳	廉 圭 鎬	柳 瑛	尹 斗 永	尹 弘 燮
李 根 永	李 南 基	李 文 燮	李 泳 震	李 宗 九
李 學 魯	黃 裕 顯	黃 秉 周	黃 鶴 周	

坡州三・一運動萬歲를 부르시다가 犧生되신분

金 南 山	魯 東 植	朴 元 善	安 明 煥
吳 俊 相	李 南 基	鄭 時 和	崔 弘 柱

坡州三・一運動에 參加하시어 嶽苦를 當하신분

金 東 哲	金 定 中	金 昌 實	南 東 敏	南 廷 彩
廉 圭 鎬	俞 極 老	俞 華 鎭	尹 弘 燮	李 起 河
李 仁 玉	李 桂 宅	林 明 燮	鄭 甲 石	鄭 奉 和
鄭 天 和	鄭 永 義	曹 茂 釗	韓 殷 東	黃 義 東
黃 麟 秀	姜 福 山			

韓日合併當時 割腹自決 하신분 文河面 西牌里 潘 學 榮

韓日合併後 獨立運動을 展開中 倭憲兵을 殺害하시고 絞首刑을 當하신분

汶山里 鄭 弘 俊

韓國合併後 獨立運動을 하시다가 艱苦를 當하신분

權 重 三 金 潤 鍾 金 殷 中 白 永 鉉 宋 今 宗

尹 致 大 李 大 孺 李 容 鉉

韓日合併以後 獨立運動을 하시다가 海外로 亡命 一時臨政에 參加하신분

金 雄 權 朴 贊 翊 (臨政內務長官) 沈 相 恪 洪 鍾 萬

黃 裕 顯 黃 秉 周

西紀1978年 3月 10日

大韓民國學術院會員·서울大學校名譽教授

文學博士 李 崇 寧 謹 撰

建 立 委 員 會 任 員 名 單

顧 門

坡州郡守 姜 道 熙

坡州警察署長 白 錫 春

坡州教育長 金 澄 熙

大韓民國學術院·서울大學校名譽教授

文學博士 李 崇 寧

名譽會長 三, 四代國會議員 丁 大 天

委 員 長 八, 九代國會議員 朴 命 根

副委員長 宋 樂 鏞 宋 榮 高 李 圭 煥 李 相 鎮

曹 守 天

監 事 崔 炳 德 尹 漢 容

總務理事 崔 仁 泰 金 敏 泰

財務理事 李 漢 秀 金 大 泳

涉外理事 金 榮 國 安 應 植

파주 3·1운동 기념비문

여기는 파주임진의 나루를 뒤에지고 의주로 가는 국도의 길목이며 군사의 거점이어
서 옛부터 자주 전란에 휩쓸린 곳이다. 가까이 이씨왕조에 들어서도 임진왜란에는 왜
군의 북상과 그 퇴각의 길이 되고 추격의 명군도 벽제관 싸움에 앞서 여기에 진을 쳤
고 선조26년 9월 환가가 임진나루의 싸움터를 지날때 진망 장사를 제지내게 한 곳이
고 인조반정에 윤천부사 이중로와 장단사 이서가 군사를 이끌고 합류한 곳도 여기이고
인조2년에 이괄의 반군이 여기서 관군을 물리치고 남하했고 그 5년에 관군이 강홍립
을 앞세우고 여기를 거쳐 동진했고 병자호란에 청군이 여기를 짓밟고 남하했다. 이제
6·25사변을 겪고도 북녘의 공산군을 지호의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니 국토양분도
슬프거니와 이 무슨 애통는 시련이라. 그러나 이런 역사환경에서 우리파주군민의 피속
에는 유달리 나라와 겨레를 위하는 정신이 연신상계 되어온 것인데 1919년 기미 3·1
운동이 일어나자 군민의 끓는 피는 어찌 이를 좌시할 수 있었으랴. 우산 심상락선생을
주도로한 19인의 결사대가 즉각 조직되고 군민의 동원 그 시기의 결정·결행작전의 책정
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그 밀명이 왜경의 감시를 주비면서 각면의 유지에게 전달되었으
니 폭풍전야의 정적과도 같이 긴장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공룡시장의 장날이 거사의 그날이었다.

운집한 50여명의 군중은 행동개시의 본부지시를 기다렸다가 지시가 내리자 일대시
위로 들어가니 독립만세의 감격은 노도와도 같이 지축을 뒤흔들고 그 시위의 방향은
자연봉일천왜경 주재소로 잡고서 이중 삼중으로 포위를 좁혀갔다. 왜경들은 떨고 당황
했다. 시위가 일보 일보 다가들자 왜경은 미친듯이 총을 들고 무차별 사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독립만세의 고함은 더욱 높아갔지만 공권이 어찌 총기에 맞설수 있었으랴. 10
명의 군국자와 70여명의 부상자를 내고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선비들은 의거를 시기하거나 선전함이 없이 검혀와 침묵으로 자못 성현의 몸가짐과 같

이 처신했으니 후배들은 어렵것이 이 의거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점점 망각에 가까이 잊어지려함에 있어 우리는 이 사실에 글을 엮어서 돌에 새겨 자손 만대에 전하려 한다. 이제야 우리는 누구나 선열의 의거를 되새길 수 있고 그 정신을 본받아 향토의 보람을 드높이게 되었으니 의거의 선열들이시여 안심하시고 고이 잠드오시라.

파주3.1운동을 주도하신분

심 상 각	김 응 권	권 중 환	박 우 용	백 익 수
심 의 봉	염 규 호	유 영	윤 두 영	윤 홍 섭
이 근 영	이 남 기	이 문 섭	이 영 진	이 종 구
이 학 로	황 유 현	황 병 조	황 학 주	

파주3.1운동만세를 부르시다가 희생되신분

김 남 산	노 동 식	박 원 선	안 명 환
오 준 상	이 남 기	정 시 화	최 홍 주

파주3.1운동에 참가하시어 옥고를 당하신분

김 동 철	김 정 중	김 창 실	남 동 민	남 정 채
염 규 호	유 극 로	유 화 진	윤 홍 섭	이 기 하
이 인 옥	이 규 택	임 명 애	정 갑 석	정 봉 화
정 천 화	정 영 의	조 무 쇠	한 은 동	황 의 동
황 인 수	강 복 산			

한일합방당시 할복자결 하신분 교하면 서패리 반 학 영

한일합병후 독립운동을 전개중 왜헌병을 타살하시고 교수형을 당하신분
문산리 정 홍 준

한국합병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옥고를 당하신분

권 중 삼 김 윤 중 김 은 중 백 영 현 송 금 중
윤 치 대 이 대 유 이 용 현

한일합병이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외로 망명 일시임정에 참가하신분

김 응 권 박 찬 익(임정 내무장관) 심 상 각 홍 중 만
황 유 현 황 병 주

서기 1978년 3월 10일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서울대학교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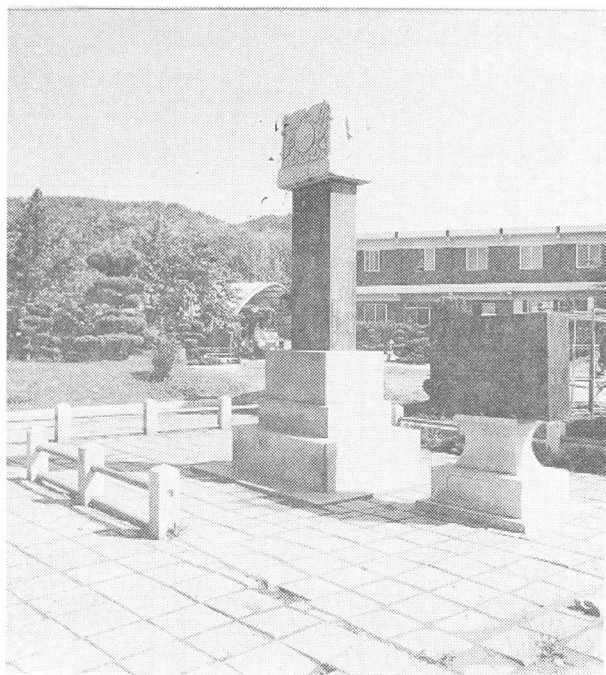
문학박사 李 崇 寧 謹撰

건립위원회임원명단

고 문	파주군수	강 도 회
	파주경찰서장	백 석 춘
	파주교육장	김 형 회
	대한민국학술원 · 서울대학교명예교수	
	문학박사	이 승 녕
명예회장	3, 4대국회의원	정 대 천
위 원 장	8, 9대국회의원	박 명 근
부위원장	송 낙 용	송 영 설 이 규 환 이 상 진
	조 수 천	
감 사	최 병 덕	윤 한 용
총무이사	최 인 태	김 민 태
재무이사	이 한 수	김 대 영
섭외이사	김 영 국	안 응 식



파주 3·1운동기념비(조리면 봉일천리 농협옆)



당초 3·1운동기념비(봉일천총살장소) 3·1운동발성비(광탄면 신산리(광탄중고교정))

오호라 슬프도다!

오직 국가민족을 위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 삼십육년에 걸쳐
 수많은 애국순열사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산아한 녀를 너는
 아는가 모르는가!

여

백